東大新聞

제 1201 호 〈주간〉 1964. 1. 1 등록번호 다-10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6년(불기2540년) 5월 13일 (월요일) 1

발행인 송석구
편집인 최순열
주간 이준성
부국장 이익주
편집장 곽영

펴 낸 곳 :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3가26
☎ 260-3491~2 FAX.(02)279-1270
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770-2057)

금주일언 널리 어진 벗을 근심하고, 중생들을 돌보아 가엾이 여기며 항상 인자한 마음을 행하면 가는 곳마다 편안하다.

〈법구경·자인품 129절〉

개교 90주년 맞이 '96 대동제

서울캠 통일대행진 등 실천의 장 마련
경주캠 지역민 함께하는 건전문화 조성

'96 대동제가 14일부터 17일 서울·경주 양캠퍼스에서 열린다.

서울캠 제28대 총학생회(회장=유병문·불교4) 주최로 열리는 개교 90주년 맞이 목멱 대동제는 교육재정확보와 동국발전을 모토로 한다.

총학생회는 이번 대동제의 의의에 대해 '동국 90년 역사를 총화하고 1백주년을 준비하는 힘찬 도약기로서의 역할'과 '날카로운 정세인식을 바탕으로 한 투쟁적인 실천의 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와 관련, 총학생회는 △주인주체인 단위의 강화 실현 △개교 90주년 의미와 동국발전 실현 △대선자금공개와 교육재정확보를 위한 투쟁 결의를 목표로 세웠다.

세부일정을 살펴보면 14일 10시 문산에서 임진각 까지 도보로 행진하는 통일 대행진이 개최되고 이후 초청가수의 공연과 통일선언문 낭독이 있다.

15일에는 학자거리, 5·18거리, 동국역사거리 등이 동악 곳곳에서 펼쳐지고 민속놀이 기구가 설치되며 각 단과대에서 준비하는 행사가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16일 11시에는 대동한마당이 열리는데 응원단 백상 공연, 줄다리기·닭싸움·3각 경기 등 각종 체육행사가 진행되며 시상 및 장기자랑 후 뒷풀이도 마련돼 있다.

17일에는 민족자주의 날이 선포되어 2시 열린 강좌(반미의 관점과 여성운동의 관점에서)가 개최되고 7시 녹두사거리에서는 대동제 폐막식이 열려 지역주민과 함께 어울어지는 흥겨운 마당이 연출된다.

그밖에 대동제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불상앞에서는 일몰후 영화가 상영되고 팔정도 주변에는 소원 줄 꼬기가 실시 된다.

한편 주점은 15·16 양일간 만해광장에서 열리는데 민중연대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1주점 1민주단체의 연계로 운영되며 1단과대 1주점을 원칙으로 한다. 주점 추첨은 오늘 오후 5시에 있다.

경주캠 제13대 총학생회(회장=장재봉. 사복4)가 주최하는 '96 임석 대동제'는 각 단대 및 자치기구와 연계해 '이전까지와는 다른 희망찾기'라는 기치아래 소비향락적인 축제이기보다는 지역주민과 함께하고 건전한 대학문화를 조성하는데 그 목표를 두었다.

대동제 기간의 세부일정을 살펴보면 14일 오후 5시 문화공연등의 행사로 전야제가 있다.

15일에는 개막선포, 언럽공청회, 대동제 축하공연, 임석가요제등이 녹야원을 중심으로 열리며 문무관에선 오후 4시 꽃다지, 최도은 초청공연이 있다.

16일 3시에는 우금치 초청공연이 교내사거리에서 열리고, 4시 녹야원에선 라이브 콘서트가 8시에는 자선콘서트가 문무관에서 열린다.

17일 1시에 녹야원에선 전통혼례를 시작으로 길거리 농구대회, 새내기 대토론회가 각각 열리며 오후 4시에는 대동제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벽상연이 문무관에서 있다.

한편 작년과 달리 '96 임석대동제'는 주점추첨에 있어 과체제강화를 위해 동문회를 제외시켰고, 60여개의 동아리연합회측은 올바른 대학문화를 찾고자 주막을 포기하고 먹거리를 신청함으로써 먹거리(분식) 부분이 강화되었고, 각 동아리 특색을 살려 만들고자 한다.

또 '김윤호 돕기 운동'이 활성화됨에 다라 대동제때도 헌혈증서를 많이 기증한 3개학과에 한대 주점을 배정하고 대바자회를 여는등 관련된 행사가 다채롭다.

대동제를 준비함에 있어 총학생회장 장재봉군은 "소비지향적인 상업문화가 우리의 대학문화는 아니다. 대학인만이 가지는 건전한 대동제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동국 웅비의 꿈 이룩하자"

개교 90주년 기념식

개교90주년기념식이 지난 8일 오전10시30분 학술문화관 중극장에서 열렸다.

송석구총장, 오녹원이사장, 황명수총동창회장과 교직원 및 학생등 내외인사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이번 기념식은 △삼귀의 △발원문 봉독 △연혁보고 △교직원 근속표창 △우수 연구원에게 기념패 및 연구비지급 △총장·이사장 기념사 △조계종총무원장·총동창회장·외국자매대학총장 축사 △사홍서원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송석구총장은 "다가오는 21세기에 대비하여 전통과 현재·본질과 현상의 조화를 통한 동국웅비의 꿈을 이룩하자"며, "각 주체들의 화합과 최선"을 강조했다.

이어 개교90주년을 맞아 초청된 외국자매대학총장중 일본 대정대총장, 불교대총장, 중국 북경대사회과학처장, 서북대총장 등은 축사를 통해 "학술교류의 중요성과 증진에 힘써달라며"아울러 본교의 개교90주년을 축하했다.

또한 이자리에 참석치 못한 뉴욕, 미시간주립대 등 20여개 자매대학에서는 축하 메세지를 보내왔다.

한편 기념식후 12시부터 학술문화관 식당에서 기념연회가 있었으며, 오후1시30분께는 교정에서 기념식수가 있었다.

야구부 후원회

8백만원 모금

야구부 후원회(회장=정용길·정치외교학)는 야구부(감독=황동훈)의 춘계리그전우승후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후원금을 모금, 지금까지 총 8백만원을 모았다.

선수, 감독격려와 전지훈련 보조금에 쓰이는 후원금은 이사장, 총장, 후원회장을 위시해 행정대학원(2백50만원), 경영대학원(2백만원), 정보신업대학원(1백만원), 문화예술대학원 교직원의 동참에 위해 이뤄졌다.

신일식 후원회 총무이사는 "동문들의 후원이 야구부선수들에게 큰 힘이 된다"고 밝히며 함께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지금까지 야구부 후원회 기금은 총3천8백만원이다.

산업기술대학원

1천만원 기탁

산업기술대학원(원장=김상규·토목공학)은 지난달 29일 오후3시 총장실에서 학교발전기금 1천만원을 1백주년사업본부(본부장=한보광·선학)에 전달했다.

지난달 8일부터 26일까지의 모금기간을 거쳐 마련된 이번 기금은 재학생들로만 모금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산업기술대학원 송영규총학생회장(석사 3학기)은 "제3캠퍼스 조성을 위한 성공적 사업추진과 21세기를 향한 희망찬 본교발전을 기대한다"고 기증 이유를 밝혔다.

불문원 학술 세미나 개최

한국불교 이상적 진로 모색

'다종교 사회에서 불교의 진로'란 주제의 학술세미나가 오는 17일 오후1시30분부터 5시까지 학술문화관 중극장에서 불기 2540년 부처님 오신날 불교문화연구원(원장=권기종·불교학) 봉축행사 일환으로 열린다.

한국불교의 문제와 이상적인 진로 모색을 위해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주제 발표가 끝난뒤 서운길(불교학)교수, 홍사성 불교TV 제작국장, 박선영(교육학)교수, 이봉춘(불교학)교수등 4명의 토론자가 불교에 관한 주제를 몇가지 선정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학술세미나를 담당한 불교문화연구원 최봉수연구원은 "다종교 시대에 있어 불교에 관한 학술세미나는 현실적인 문제인 만큼 5백여명의 인사를 초청, 뜻깊은 발표회가 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세미나의 주제 및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다종교 사회에서의 불교의 진로=권기종(불교학) △한국불교의 역사에서 본 다종교와의 관계=김영태(불교학) △정부정책의 종교편향성 시비와 불교의 대응=최창술(선학) △가족 구성원간의 종교적 불화와 그 해결=정병조(국민윤리학) △종교다원사회에서의 한국불교의 역할=목정배(불교학)

교수동정

▲황용호(희계학)=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학회 참가차 미국 아리조나 주립대 방문.

▲장오현(경제학)=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한국 대학교육 협의회 주관 선진자원봉사 연구 시찰을 위해 미국워싱턴과 샌프란시스코 방문.

◇기원… 지난 6일 불상앞에서는 점등식이 진행됐다. 사진은 점등식이 끝난후 동국의 비상을 염원하며 '탑돌이'를 하는 모습. 〈김희동 기자〉

보 리 수

지혜의 눈을 갖자

미운 사람이 있거든 만나기 이전으로 돌아가자. 잃은 것이 있거든 갖기 이전으로 돌이켜서 생각하자. 그렇디면 싫다는 괴로움도, 억울하다는 부담스러움도 없을 것이다. 다만 하루를 살더라도 즐겁고 명랑하고 쾌활하게 살자. 본래 모르던 사람을 미워할 것이 무엇이며, 본래 가진 것이 없었는데 잃을 것이 무엇이겠는가.

무엇을 알고 분별하면 괴로워진다. 안다는 것 때문에 미워하고 억울해 하기 때문에 괴로워진다. 지혜는 거울의 밝음과 같은 것. 거울은 거짓과 참됨을 논하지 않는다. 그러나 거울은 거짓이 없다. 모든 것을 사실대로 판별하여 비쳐준다.

밝은 거울과 같은 지혜의 눈을 갖자.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다. 모두가 평등하여 옳고 잘못됨의 다툼없이 더불어 화해롭게 즐겁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유마경(維摩經) 의 '둘이 없다'는 법문에 요실(樂實)보살이 말했다.

"진실과 허위는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보는 사람은 진실 조차도 보지 않는데 어찌 허위를 보겠습니까. 진실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혜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지혜의 눈에는 본다고 하는 것도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절대 평등의 경지에 든다고 합니다."

자기에 대한 참된 주인의식을 갖자. 진실된 자기의 주인의식이 없는데 어찌 스스로의 허물을 알 수 있겠는가.

태양은 날마다 지구 동쪽에서 올라서 서쪽으로 진다. 그러나 태양은 본래 떠오른 적도 없고 넘어가 없어져 본 적도 없다. 다만 지구가 태양을 마주하고 등졌을 뿐이다. 태양은 언제나 높푸른 허공에 본래대로 있었으며, 만물을 밝게 비쳐주고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을 뿐이다.

이렇듯이 대립된 생각으로 갈등과 반목과 질시의 눈을 버리고, 본래 움직임이 없고 변함없이 밝게 빛나는 '지혜의 눈'을 갖자.

이 법 산

〈불교대 선학과 교수〉

수습기자를 뽑습니다

'지구는 세모다'

지구를 세모로 만들 수는 없어도
원을 세모라고 우길수 있는
겁없고 철없는 새내기를 찾습니다.

• 원서접수: 5월25일(토) 오후 5시까지
• 시험일자: 5월27일(월) 오후6시
• 문의처: 서울·경주 본사 총무부
(서울: 260-3491/경주: 770-2057)

동대신문사

'스승의 날'기념 동대신문사 기획광고

베푸는 뜻 받드는 마음

큰 뜻 열어 90년 우리 동국은
일찌기 높고 깊은 스승의 가르침이 도도하였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
온 누리를 밝히는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오로지 그 가르침을 좇아
항상 그늘진 곳에 다사롭게 자비를 베풀겠습니다.
이제 삼백예순날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새로운 면학 정진의 약속으로
스승의 큰 은혜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시다.

동대신문사

재학생 모교 방문 안내

청년의 패기와 추억이 있는 곳!
출신 고등학교 선생님을 찾아 뵙고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후배와 정다운 대화의 자리를 만든다면 더욱 뜻깊은 방문이 될 것입니다.

1. 신청 기간: '96. 5. 13~5. 22
2. 방문 기간: '96. 5. 15~5. 25
3. 신청 장소: 학생과(본관 3층, 전화: 260-3048)
4. 신청 방법: 고교동문회 또는 방문희망자 학생과에 신청서 제출

※방문에 따른 사은품과 교통비 일부를 학교에서 보조하니 재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열린글터 ▶

개성있는 목소리를 가진 동대인을 찾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글, 사진 만화를 보내주십시요. 하이텔을 이용하실 경우, DGU 10번게시판이나 ID: dgpress메일을 통해 투고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260-3491·2 (0561)770-2057

대학구성원들 자기역할에 책임 다못해

기본에 충실해서 대학발전 이룩

요즘 도서관은 중간고사기간과 맞물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자리잡기가 힘이 든다. 시험기간이든 아니든간에 여하튼, 대학 도서관이 붐빈다는 것은 계절과 더불어 활기도 있어 보여서, 그리 나빠 보이진 않아서 좋다. 서론은 접어두고 본론부터 들어가야 겠다.

우선 첫째는 형광등에 관한 문제이다. 열람실내에는 형광등은 어둡거나 또는 아예 등이 나간 채 방치되고 있는 것이 적잖게 있다. 며칠전이었는데, 도서관관계인에게 즉각적인 교체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구차한 변명등은 뒤로 하고라도 이전에 이미 그 사실들을 알고도 가만히 있는데에 대해 나는 화가 치밀었다. 이것은 형광등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한 학생을 아무렇게나 방치하는 듯 했다.

이미 나는 타대학에 비해 우리 열람실들의 형광등의 설치자체가 상당히 높아서 학생들의 학업과 건강(피로감증폭, 시력감퇴등)에 부담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래 전부터 설비문제를 건의하려 해왔다. 그런데 많은 비용문제가 따르는 그런 진보적인 건의는 접어두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시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당히 실망했다. (불량형광등수: 제1열람실-8개, 제2열람실-14개, 제5열람실-17개등)

둘째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우들의 태도문제이다. 열람실내에서의 잡담이며, 도난사고, 휴게실의 기물파손(커피 자판기)등 기타 여러가지가 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일인의 좌석의 다수확보는 선의의 학생들에게 상당히 피해를 줄 수 있다. 더욱이 요즘같은 시험기간에는 …. 더욱 놀라운 것은 잘못을 지적하면 할수록 이젠 그것이 아주 당연스런 어떤 것이 되어 버렸다는 사실이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흘러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들은 분명 잘못된 악습이다. 나자신도 그렇게 해 왔기에 부끄럽지만 아직, 바로잡기에 그리 늦지 않았다면 이젠 좀 바르게 고치고 싶다. 고쳐서 훌륭한 후배들에게 바르게 물려 주고 싶다.

4학년인 지금 뒤돌아 보면 내게 있어서 도서관은 단지 공부만 하는 곳은 아니었다. 때로는 휴식처로 때로는 약속장소로써,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헤어짐, 즐거움 또는 갈등등으로 어울어진 늘 시작과 끝이었다. 흔히들, 대학의 심장은 꺼지지 않는 도서관에 있다고들 한다. 심장이 이렇게 질병을 앓고서야 대학의 무슨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도서관 이용은 단순한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우리들 각자가 찾아야 할 몫(권리)이다. 더불어, 학교당국의 반성과 나아가, 근본적인 문제부터 고민하지 않는 학생자치 기구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올해는 동국의 개교 90주년을 맞이 하는 해이다. 실로 오랜 세월이 동국인과 함께 흘러 왔다. 지역사회는 물론이고 국가에도 적잖은 기여를 해왔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오늘 거창하게 세계화를 부르짖고 싶지 않다. 역사 바로세우기에도 관심이 없다. 다만 우리 모두가 기본에 좀더 충실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정 성 목
〈법정대 법학과〉

▶대동아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 술먹고, 추태부리고 남녀 쌍쌍이 잔디밭에 비몽사몽간에 누워서 밤이슬 맞고, 대학이란것이 이런것인가? 대동아 전쟁이 아닌 대동 즉, 다같이 어울려 우리 동대인이되는 기회를 만들어 보아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

▶축제가 진정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기전에 축제때 어떤 마음자세로 임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보자구요.

▶대동제란 말 그대로 '크게 하나 되다'의 뜻이다. 온방골의 큰 행사인 만큼 모든이의 참여속에서 밝고 건전한 대동제 행사가 치뤄지길…

▶술판만 벌이지 말고 진정한 젊음의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자.

▶그냥 수업하자는 말 안나오게 제대로 한번 해보는거야.

▶대동제가 아니라 동대제(?) 아니야?

▶대체
동악에는
제대로 된 학사행정이 언제쯤 있을까?

▶대동제는 학칙으로 No CLASS DAY로 바꿔야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 동국대의 제전

▶대동제에 여러분들의 이쁜 여학우들을 데려와 우리 학교 이미지좀 살리시유-.

▶대동제는 누구를 위해서 왜 하는 것일까?

▶대동제가 재미 없다고 투덜거리지만 말고 스스로 재미있게 만들어 봅시다.

▶대학시절동안에 제일 쩜 있기를…

▶대동제가 총학의 축제는 아니겠지요?

▶일주일전에 기획하면 주점밖에 더 나올게 없겠지…. 주먹구구식 학생회행정 반성합시다.

▶'대동제'라는 이름하에 축제라는 걸 처음 해보는 새내기들에겐 생소할지도 모르지만, 지성인다운 자세로 대동제를 맞이해야 할때가 아닌듯…

▶열사의 49제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단순히 술마시고 노는 대동제가 되선 안되겠죠.

▶신승훈의 신곡소개무대를 동국대학교 대동제에서….

▶대동제가 주동제(酒東祭)가 되면 안되지~

나기

대 동 제

지하철 3호선

송 현 주
(동국문학회 회장)

이 지하철은 지하철 공사가 노조 파업에 따른 시민 여러분의 불편을 줄이고자…
저희 지하철 공사는 시민 여러분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조속한 해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 걸펀지게 내뱉고 싶다.
"드러워서. 내 원 참, 왜 앞 뒤로 미는 거야!

사람들에 가려서 강이 안 보였다.
한 밤을 내달려도 강 불빛만 보면,
넘쳐흘러도 좋을 것 같이 시원하던데.
딸으로 범벅이 된 오늘은 뵈지도 않았다.
문학회 실에서, 살벌하게 펼쳐 보이며, 울부짖던 외침이
빽빽한 지하철 안
멀리 아득한 꿈 속 나라 노랫소리로…
밀리고 밀려서 얻은 한 자리.
이 두발 곧게 버티고 선, 서 있을 수 있는 곳.
내주지 말아야지.
야무지게 입을 다물고, 창에 비친 나를 본다.

눈물이 핑 돌고, 부끄러워·뻘개진
창문 속, 나를 본다.

밖으로 길게 꼬리를 문 함성이 내 달리고

이제, 다음 역에서
자리 싸움보다 더 큰 몸부림으로 떨쳐,
붉어진 내 얼굴에 빗대어
한 길 흐르는 강물도 보아야겠다.

독재정권 맞서 산화해간 선배들

올바른 명예 복원과 정신 계승해야

묘지번호 133번, 동국대학교 1학년 박병규. 망월동을 찾아가 본 동악인이라면 누구나 이 묘비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분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의문을 가져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문속에서 나는 올 2월부터 실사작업에 들어갔고, 먼저 광주에 내려가 제반 5월 단체를 방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현재 유가족들이 '5.18 유족회'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가족들을 만나본 결과 망월동에 묻혀계시는 박병규 선배는 동악의 선배임이 확실했다. 그 분이 어떠한 선배인지에 대해서 밝히자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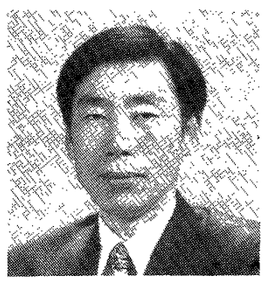
1979년 10.26 유신독재의 붕괴 이후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세력은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켜 정권찬탈을 음모한다. 그리고 1980년 소위 민주화의 봄이라는 4, 5월을 맞이하면서 권력탈취를 가시화하기 위해 국민들의 민주화의 요구를 진압, 차단하게 된다. 그리고 신군부는 5월 17일 비상계엄령의 전국확대를 기점으로 전국의 주요대학에 공수부대를 파견하고, 각 대학은 이에 휴교령이 내려지자 고향인 광주로 내려가게 되고, 바로 전남대 정문앞 시위에 참여하게 된다. 그 이후 도청안에서 시체관리 일을 하다가 27일 계엄군의 총탄에 맞아 사망하였다. (지면관계상 자세한 것은 "광주민중항쟁사료전집, 1990, 풀빛출판사" 참조) 선배님이 돌아가신 이후 아버지는 4년후 화병으로 돌아가시고, 현재 어머니와 형님, 그리고 여동생이 5.18 유가족 협의회에서 활동하고 계신다. 지난 5월 8일 우리는 박병규 선배님 어머니를 찾아가 뵈었다. 어머니는 이전에 투쟁하다가 다친 골절상 때문에 현재 거동이 불편하시다고 한다.

광주민중항쟁이 일어난 지 16년이 지난 지금, 군부독재에 맞서 산화해 가신 우리들의 선배님을 올바르게 복원하는 것은 후배된 도리로서 당연한 것 같다. 따라서 이번 5.18은 동악에 있어 무척이나 중요한 의미로서 존재한다. 선배님을 올바로 복원해 내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속에서 5월을 살아갔으면 한다.

나 상 원
〈법과대 법학과〉

동/문/칼/럼

건전한 젊은문화



먼저 모교의 개교 90주년을 동문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국문학과에 입학하여 4년을 졸업하고 줄곧 서울, 경기일원에서 중·고등학생을 가르치는 교직에 몸담은지 20여년 좀 더 교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모교 교육대학원 행정학과에 93년에 입학하여 현 5학기 재학중에 있으므로 남다른 모교에 대한 애착과 감사의 염을 갖고 있음이 사실이다. 학부 4년을 잠시 회고해 보면 무엇보다도 박학하신, 소박한 말로 표현하면 쟁쟁하신 교수님 밑에서 -무애 양주동 박사님의 저멀리 윌리엄 위즈워드의 영시 감상을 필두로 이동림, 이병주 교수님의 동국정운과 두시언해에 대한 해박하신 강론과 조연현 교수님의 은은하면서도 깊었던 현대 문학의 이해, 부리부리한 눈에 김기동 박사님의 고대 소설의 현대화등 지금은 고인이 되신 분이 많지만 아직도 고매하신 모습 눈에 삼삼하고 그 열강 귀에 쟁쟁하다.

봄이면 교정의 진달래와 라일락향이 남산의 정기로 피어나 코끼리의 긴 코를 간지럽히고 가을에는 하나 둘 나부끼는 단풍과 낙엽을 벗 삼아 불상 앞 연못가를 거닐던 기억, 여름에는 우거진 녹음만큼이나 겨울은 겨울대로 헐벗은채 하늘을 향해 묵상하는 나목들처럼 우린 중앙 도서관에서 밤을 밝히며 삶의 지혜와 인생의 득오를 위해 정열을 불태우기도 했었다. 이제 불혹의 나이로 많이 산 인생은 아니나 그간 모교에서 몸에 익힌 붉타의 자비와 베품의 철학과 처용의 여유와 고려속요의 진솔함을 몸에 간직한 채 후학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정진하였다. 아직은 지나는 길을 뒤돌아 보는 시간보다는 급격히 닥쳐오는 변화의 물결에 적응코자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인생관은 "열심히 노력하는 자에게는 길이 열린다"는 좌우명을 가슴깊이 간직한채 생활해왔다. 매사에 적극적인 신념을 갖고 옳다고 생각하면 곧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를 갖고자 노력하였다.

지난해 5·31 교육 개혁이 발표되었으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교육 현안은 산적해 있다.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과 성실한 행동으로 노력하면 반드시 해결이 된다는 신념으로 이른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에 학생들과 씨름을 하여 몸은 다소 고달파도 마음은 오히려 가볍다. 헤겔의 변증법에 반이 없는 정이 없듯이 날카로운 이성비판은 필요하지만 치기어린 부정을 위한 부정은 자기를 그르치고 사회의 안녕을 해칠수도 있다. 그래서 비난이 아닌 비평을, 언쟁이 아닌 토론을, 사리(私利)가 아닌 공리(公利)를 생각하는 건전한 젊은이의 문화를 정착시켜야 하겠다.

젊은이는 꿈이 많기 때문에 시련도 많으나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는 말이 있듯이 동키호테의 모험성을 바탕으로 매사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눈으로 열심히 배우면 그 끝은 항상 좋으리라 생각한다. 다시 한번 개교 90주년을 축하하면서 모교의 발전과 동문들의 가정에 항상 평화가 함께 하기를 진심하기 기원한다.

류 재 희
〈과천외고 교감·국문75졸〉

목멱골

⊠ 축하합니다

■동근아, 생일 헷갈려서 미안. 13일이 너의 생일이었구나. 그래, 축하하마.
-정

■전자공학과의 두 기둥(?) 광수(일명 단무지)와 상욱(일명 보이지 않는 번데기)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전자과의 동물협회회장 미스터 펭귄

■왈가닥 전자 돌벗 유일 女子의 귀빠짐을 하늘 빌어 축하!(5월18일)
-왕창 멋

■15일 광호, 18일 연주 생일을 잘 보이지 않는 동기가 축하합니다.
진짜루

■오늘은 은경이랑 400일째 되는 날이에용!
모두 모두 축하해 주세요.
-토목과 뺀질이

■지교(김윤정), 국문(장재원) 1년을 축하한다.
-전지95

■성아는 양심도 없어요!
5살이나 연하인(현中3) 민석이를 좋아한대요.
그들의 사랑을 축하해 줄까, 말까?
-decadent

■동엽, 군입대를 축하해.
언제나 건강하고, 2년 2개월동안 씩씩하게 잘 지내길 바래
-지은

■선생님! 정구부 우승 축하드려요.
스승의 날에 찾아뵐께요.
-지영

⊠수고하셨습니다

■2박3일의 힘든 일정 잘 해내신 거리 농활대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총

■산업공학학우여러분, 중간고사 보느라 수고했어요!
-정도

■공연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은 목멱성 후배들에게 맛있는 호떡 많이 많이 사줄 것을 다짐합니다.
-민중탄압의 기수 양심있는 전투경찰

■J&R체육대회에서 비록 지긴 했지만 모두모두 잘 싸웠고요, 다음엔 꼭 트로피를 빼앗아 오도록 합시다.
Juliet Fighting!
-Jun

동/악/광/장

⊠알립니다

■수교과 95학번 M. T. 를 간답니다.

■군대가는 남학우들과 떠나는 한사람(?)을 위한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슬프지만 M. T. 가서 잘 놀아요.
-95

■개포고 나온 분들, 5월15일~17일 화공PROCESS가 열립니다. 열외없이 전원 구경와라(특히E조)
출석체크 할 것임. 안오면 ×××
-화학공학과 개포고 출신 깜패

⊠그리고…

■이주영 선배님 시험에 합격하세요.
-지성

■동기에게… 무지 미안하다. 나 역시 힘들다는 것을 모두 알아주길.
-지치미가

■제게 '강한미'라는 누나를 알게 하신 신께 감사드리며…
-정식

다향관 식당		
13(월)	두부김치(1,000)	햄섞어찌개(1,000)
14(화)	간짜장밥(900)	갈비탕(1,500)
15(수)	소고기야채볶음밥(1,000)	만두육개장(1,000)
16(목)	순두부찌개(900)	산채비빔밥(1,000)
17(금)	탕수육백반(1,300)	오징어찌개(1,000)
18(토)		카레라이스(1,200)
동국관 학생식당		
13(월)	시금치콩나물국(900)	불고기비빔밥(1,000)
14(화)	설렁탕(1,000)	어묵김치볶음(900)
15(수)	버섯두부찌개(900)	닭조림(1,500)
16(목)	꽃게매운탕(1,500)	떡잡채(1,000)
17(금)	*충식 스파게티햄볶(1,000)	*색식 순대국밥(1,000)
교직원식당		
13(월)	동북어찌개(2,500)	카레라이스(2,200)
14(화)	갈치탕(2,500)	버섯볶음(2,500)
15(수)	꼬치오뎅(2,200)	보쌈정식(3,000)
16(목)	쇠고기야채전골(2,500)	해물덮밥(2,500)
17(금)	*중식 바베큐폭찹(3,200)	*색식 돌솥비빔밥(2,200)

온방골

⊠ 축하합니다

■상경대 민중노래패 5주년 기념공연을 축하합니다. 일시: 5월16일 7시에 녹야원.
-동·연 체육분과장

■대경총련 출범식 춤한마당에서 민주상을 탄 새·여·사 이쁜이들 엄청시레 축하한다. 더불어 백천지 재롱이들도…
-대왕마마 쪼

■작년 5월16일을 생각하며 우리 사랑하는 은라의 생일을 끝없이 축하하며 끝없는 사랑이 되었으면…
-너의 끝없는 사랑 정헌

■애오라지 제12회 Work-shop 공연을 축하합니다.
-계석

■민우선배(불미과)환갑 축하해요.
-눈물

■인선형! 이번에 원고료 왕창 나온거 억수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두 저희 마니마니 사랑하는 일면 장님이었음 해요.
-수습 쭈디

■우리신문사의 꽃(?)인 현주형, 선영형의 무사귀환(졸업여행에서) 하신걸 축하드리구요, 힘내셔서 퇴임반지 그날까지…
-또 수습 쭈디

⊠수고하셨습니다

■애오라지 신입생여러분 Work-shop 공연하느라 수고많았다. 특히 성현, 원락, 동석, 영욱, 아군이는 더욱더…
-까만회장

■강철사랑 후배님들, 공연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계속 수고하십시요.
-아도원

■구미 한국합섬 파업지원공연하신 해·몸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세여.
-아도원

■Quest의 귀여분 그리고 씩씨칸 아우님들 연습하느라 참 수고가 많네요.
결코 흘린 땀들이 무색하지 않는 그런 첫무대가 되길… fighthing!
-4학년 무게들

■동대신문사의 꽃(?)이자 우리의 붕이신 인선형과 우리동기 큐라(선희)그리고 현주형 모두 특집만드느라 수고하셨어요.,
-주영

⊠알립니다

■21세기 진보음악을 추구하는 솔메리아가 축제기간중 공연합니다.
-짱(긴머리청년)

■새벽을 여는 사람들 공연합니다. (5월14일) 96·95 모두 열심히 합시다…
-악

■모든 동국인들께 알립니다. 고전극 연구회 "탈패"가 5월15일 축제공연을 아주 아주 멋지게 올리려 합니다. 많이많이 봐주시고요, 탈패만세 만세.
-추발이, 할미

■우리 악기좀 찾아주세요. 5월8일 공연연습후 옥상 동아리방(청소년연맹 옆방, 철학·영문 같이 쓰는 방)에서 새로 산 신디 Mi를 잃어버렸습니다. 1년동안 모은 돈으로 산 귀중한 악기입니다. 혹시 그날 늦게까지 옥상 동아리방에 남아계셨던 분이 보셨다면 연락 주십시요. 연락처: 012-731-1109
-노래패 하나됨

⊠열심히

■동대에서 제일 멋진 터프가이 건우오빠 시험 잘 보세요.
-연숙

■사랑하는 올샘 동지여러분 공연 열심히 하시구 우리 언제구 힘한판 모아봅시다.
-이쁜이회 고문

⊠그리고…

■'96임석대동제를 준비하시는 총학이하 집부님들 고생뒤에 낙이 온답니다.
-東

■고생하고 계신 자연대 집부님들… 장학금도 제대로 못 드려서 죄송해요. 좀만 더 힘내세요.
-회장

불공정·표적 수사, 정당정치 기반 흔드는 세력확장

시사논단

선거사범 편파수사

김 근 태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

잔인한 5월이다. 국회 개원에 맞추어 나름대로 세웠던 연구와 활동계획이 모두 어긋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야당 국회의원은 국민이 투표로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과 청와대라는 '당선심사위원회'를 거쳐야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참담한 생각이 든다. 검찰에 의한 야당 표적수사가 15대 국회가 구성되기도 전에 정국을 얼어붙게 하고 있다.

새롭게 구성되는 15대 국회에는 20세기 마지막으로 구성된 국회이자 21세기의 서막을 열어가는 국회로서 막중한 시대사적인 책무가 주어졌다. 21세기 한국정치에 요구되는 중요한 3가지 분야가 있다. 첫째는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정치, 둘째는 정보통신시대를 선도하는 정치, 셋째는 환경친화적인 정치로 요약될 수 있다. 통일-정보-환경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을 준비해나가는 미래지향적인 정치흐름을 만들어 나가는데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자 의정활동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요즘 나는 편파수사 대책회의에 다니느라 계획했던 일정이 모두 뒤로 밀리고 있는 형편이다.

이번 선거 결과는 전체 2백99석 중에 여당에게 1백39석이라는 정치적인 패배를 안긴 여소야대 이다. 일부 언론과 여권에서는 신한국당이 1백39석에 그쳤지만 이는 내용적으로 여당의 승리라는 평가가 있다. 우리는 이런식의 오도된 선거평가를 역사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1988년 4월 26일에 실시된 13대 총선 이래 여당은 단 한번도 안정적인 과반수 의석을 획득하지 못했다. 13대에는 민정당이 34%의 지지율에 125석을 얻는데 그쳤고 92년 14대 총선에서는 38% 지지율에 1백49석, 96년 4월 11일 총선에서 34% 지지율에 1백39석을 얻는데 그쳤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88년부터 일관되게 정부·여당의 독재·독선·독주를 견제하고 비판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석수뿐만아니라 지지율에서도 여당은 야당에 보내준 지지율을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다. 그러나 여당을 심판한 국민적 선택은 매번 어떻게 좌절되고 기만당해왔는가? 우리는 바로 이 질문으로부터 현재 야당 당선자에 대한 검찰과 청와대의 편파적인 선거수사를 바라보는 엄정한 시각을 가져야 한다.

13대 국회는 역사적으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건국 이래 처음으로 구성된 여소야대 국회라는 통계적 의미보다는 5·18 광주학살의 주모자가 집권하고 있는 정권 아래에서 야당의 단합된 힘으로 광주청문회를 개최함으로써 역사적 단죄의 서막을 열었다는 점이다. 아울러 전근대적인 악법으로 통용되었던 국가보안법, 노동악법 등이 개폐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우리나라 정치가 한단계 진일보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였고 이는 국민들이 투표로서 마련해준 힘이 밑바탕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정권유지에 치명적인 위기를 맞이한 노태우정권은 김영삼 총재가 이끌던 통일민주당과 김종필 총재가 이끌던 신민주공화당과의 반민주적인 3당야합을 통해 위기를 모면하게 된다. YS와 JP에게 권력을 분점해준 대신 정치적인 위기를 벗어난 것이다. 이때의 국민적인 좌절감과 배신감은 지금 형성된 정치적 가치관의 혼돈과 냉소주의의 근원이 된다. 이는 이승만정권이 친일세력들과 야합해서 정권을 창출한 것과 비견할 만하다.

14대 국회에서도 1석이 모자라기는 했지만 당시 민자당은 안정적인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고 결국 무소속과 일부 소신없는 야당 당선자를 위협하고 회유해서 과반수를 넘겼다. 그렇다면 노태우, 김영삼 정권이 그렇게도 강조하는 여대국회가 보여준 모습은 무엇인가? 진보적이고 합리적인 법안이 모두 폐기되고 매번 정기국회 때마다 수많은 법안이 몇초 사이에 날치기 통과당하는 폭거가 자행되었다.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나는 여당후보의 불법적인 사전선거운동과 싸웠고 선거운동기간에는 금권선거와 싸웠으며 지금은 표적수사와 싸우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아직 당선자가 아니다'고 쓴웃음을 짓는 야당 당선자들의 농담은 우리를 분노케 한다.

이번 선거운동 기간에 우리 지역 야당 후보자의 정당연설회에서는 나를 비방하는 흑색유인물이 공개적으로 뿌려지고 이튿날 공중전화 박스와 주택가에 뿌려졌다. 계모임으로 위장한 수많은 불법향응이 제공되었다. 투표당일에는 일당을 받는 택시운전사가 유권자들을 가족단위, 모임단위로 투표장까지 실어다 주고 집앞까지 모셔다 주면서 책임자가 또 그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 유세 도중 아파트단지에 불법 홍보물을 돌리던 여당선거운동원이 잡혔는 데도 신고한지 몇시간이 지나도 경찰은 오지 않았다.

이러한 편파적인 경찰과 검찰의 모습은 선거가 끝나고 과반수 확보를 위한 당선자 빼오기에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총선이 끝나고 발표된 김영삼대통령의 대국민메세지에는 선거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바로 청와대는 '과반수 확보 대책본부'가 차려진 듯 하다.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야당에 대한 표적수사와 야당 당선자 빼가기는 의회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무원칙한 세력확장에 다름 아니다.

정국을 운용하는 힘은 정당성과 도덕성에 기반해서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밟아 국민적인 동의를 얻어 나가는데서 시작된다. 그러나 지금 여당이 보여주는 행태는 그 어떤 정당성도 획득하고 있지 못하다. 김영삼 정부는 오히려 모든 당선자들에 대해 △공정한 선거법 적용 △금권 관권 선거 진상규명 △선거사범에 대한 편파 표적수사 중지 △야당 및 무소속 당선자 영입작업을 중단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얻어나가야 할 때이다. 지금은 여야가 모두 선거결과를 냉정하게 수용하고 15대 국회에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토론해야 할 때 아닌가.

사설

함께하는 모습을

많은 개교90주년 기념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7일 KBS열린음악회를 시작으로 이미 개교기념행사가 치뤄졌고, 앞으로 윤이상 음악회, 본교 소장 국보·보물 귀중본 전시회, 중국민속품 전시회, 동국인 저작도서 전시 및 특별판매, '비전 동국 100년'후원의 밤 등이 치뤄질 계획이거나 치뤄지고 있다. 또 학생회측은 개교9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대동제를 기획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사들이 그저 서로만의 행사로 그쳐 서로 다른 각각의 90주년을 맞는 듯하다. 지난 6일 해질녘 불상앞에서 점등식이 진행되는 동안 다향관앞에서는 총학생회의 집회가 있었다. 학교측은 전혀 상관 없다는 듯 점등식을 진행했고 학생측도 학교측의 움직임과 무관하게 집회를 속행했다. 이날 봉축연등 점등식장에서 학교와 학생회가 보여준 모습은 이러한 우려를 한층 더 자아내게 한다. KBS열린음악회가 치뤄진 지난 7일에도 양측의 모습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열린음악회가 시작될 무렵인 오후 5시께부터 총학생회측은 보여주기식 열린음악회를 반대한다는 집회를 가졌고 학교측 역시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는 눈치였다.

이런식의 서로에 대한 무관심이, 이유야 어찌됐건 일반 학생들에게 표출됐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교내 인사만이 아닌 동문, 지역 시민, 그리고 그들의 가족 등 다양한 교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KBS열린음악회의 경우는 그 심각성이 더하다. 모교 90주년을 축하하며 기쁜 마음으로 열린음악회에 참석했던 많은 선배들이 어떠한 기분을 가지고 돌아갔을지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학교가 주관하는 일련의 개교 90주년 기념행사에서 학생들과 함께할 수 있는 행사는 찾아보기 힘들다. 거의 모든 행사가 학교측에서 계획됐고 학생들은 그저 참가하기만 하면 된다. 사정은 총학생회에서 주최하는 대동제에서도 마찬가지다. 대동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측과 함께하는 행사는 거의 전무한 상태다. 말그대로 학생들만의 잔치인 셈이다. 다시말해 학교, 학생 모두 서로의 의견 교류 및 공유 없이 각각 서로의 행사를 기획,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서로 협조하고 협력해나아가야할 학교와 학생의 이러한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서로간에 대화로써 미리 풀지 못하고 많은 학내의 인사들이 참석하는 공식적인 행사에서 쌍방이 불협화음을 내는 것은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는 벗어나야 할 때다. 개교기념행사도 더이상 학교만의 행사여서는 안될 것이고 학생회주체의 대동제도 학생들만의 축제가 아닌 교수·직원을 포함하는 전동국인의 축제, 말그대로 '대동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성폭력 방지법 2년을 돌아본다

실행전과 '고소율' 별 차이 없어
올바른 성교육 건전한 성문화 형성 시급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해 인권신장과 사회질서 확립을 취지로 하는 성폭력규제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특별법)이 지난해 94년 4월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됐다. 그러나 만 2년이 넘게 시행되어지는 동안의 고소율은 17.7%로 시행이전의 17%와는 별차이가 없어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선 특별법내에는 피해자의 신변보호및 불이익처분금지, 증거법상의문제, 성범죄자들에 대한 대책마련등의 부분이 빠져있거나 미약해 문제성을 안고있다.

우선 피해자의 신변보호및 불이익처분금지에 대한 조항에는 상담소직원등이 위반했을 경우의 처벌규정은 있으나, 수사재판에 관여한 공무원에게는 아무런 처벌규정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실정이고, 수사시 피해자 추궁식의 진술등으로 피해자는 제2의 성폭력을 당하고 있다. 실제 특별법시행이후 합의종용을 받은경우가 가장많고, 수사과정에서의 강압성이 두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합의·취하 종용	2
강압적 진술	1
수사지체	1
가해자위주편파수사	5
축소수사	2
인식부족	1
합 계	12건

◇직장내 성추행에 대한 경찰의 태도

아직까지 우리나라 성폭력범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피해자가 전면으로 나서기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고소, 진술보조등을 대신 수행할 '피해자대리인제도'가 절실하다. 이제도의 실행으로 본인이 직접 진술·증언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대리인이 대신해 피해자에게 이익이되는 진술을 보조할수있게 한다면 현재까지의 별변화없는 고소율이 더 높아질것이고, 또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서가 피해자의 자필이거나 서명등이 들어가 신빙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적증거로 채택되어진다면 자신의 신분등이 드러나는것을 방지해 사건의 정확한 해결과 피해자의 보호등 두가지의 목적을 실현할수있어 궁극적으로 성범죄율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실행전	실행후
고 소 율	17%	17.7%
일 반 강 간	43.7%	42.6%
일반성추행	15.6%	29.2%

◇특별법시행인 1994년 4월 1일 기준

또 증거법상의 문제를 들수있는데, 보통 강간의 경우 강간죄의 성립은 가해자가 폭력과 협박을 사용해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못하도록 한 경우에만 적용되나, 반항의 정도와 폭력과 협박의 정도에대한 규정이 불명확하다. 이는 법의 적용기준이 분명 가해자의 행위에 기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반응에 따라 적용하는 모순이므로 반드시 개정되어야하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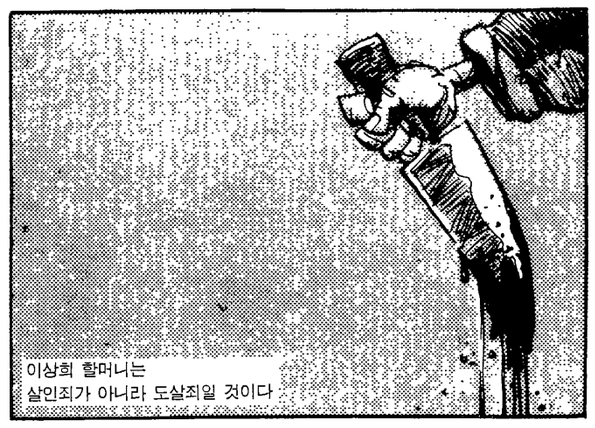
성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성폭력범죄자들은 다른 범죄와 달리 절박성이나 우발적인 범죄가 아닌 범죄자의 기질이 문제가 되므로, 사법처리 이외의 특수 교화프로그램이 필요하나 특별법은 이것을 규정하지 않는다.

끝으로 피해자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모순적 시각도 성폭력범죄를 조장하는데 한몫한다. 남성위주의 가부장적 성문화와 무분별한 외래문화의 유입으로 인한 성개방, 이들이 성폭력범죄자들에게 '여성은 성적노리개'라는 인식을 은연중에 심어주었고, 이때문에 피해자들은 가해자보다 더 심한 비난을 받고있다. 또 전통적인 여성의 정조관념은 피해자인 여성에게 육체적 충격보다 사회가 그들에게 강요하는 '정조, 순결'을 잃은것에대한 정신적인 충격이 더 크다. 이에 대한 이해의 시각이 사회전체에 동의되어지지 않는한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금기시되어오던 성의 벽을 허물고 올바른 성교육으로 건전한 성문화를 형성하고 물질만능주의에서 탈피해 인간존엄성을 회복하는것이다.

동국만평

강 성 수



이상희 할머니는
살인죄가 아니라 도살죄일 것이다

대우가족

빌리언셀러!

전세계인 누구나
한글사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큰나라가 되면 …
지금의 상상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한글로 세계를 배우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세계와 함께 나누고, 함께 숨쉬는 큰나라
세계경영이 만들어갑니다.

대우가 있습니다

큰 나라를 만드는 세계경영·기술대우

분신자살 어떻게 볼까?

무관심은 이제 그만

잔인한 달은 4월만이 아니다. 꽃이 만발하고 대동제 준비로 활기에 넘치는 5월에도 죽음의 행렬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6일 분신자살한 대구공전 전산과 박동학군. 언론의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의 죽음은 긴급속보나 대자보 한 장으로, 돌아오지 않는 또 하나의 화살이 되어 떠나간 것이다.

3월 29일, '교육재정 확보와 대선자금 공개를 위한 서총련 동맹휴업 총 궐기대회'도중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숨진 노수석(연세대 95학번). 4월 6일, 장현구군의 고등학교 후배이며 자신의 비겁함을 자책해 분신자살한 채로 발견된 진철원(경원대 95학번). 4월 7일, 등록금 인상 반대 단식농성을 벌이던 중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권희정(성신여대 92학번).

4월 16일, 동아리 연합회 선전부장이고 정권타도와 노동해방을 염원하며 분신 사망한 황혜인(성균관대 95학번). 4월19일 교지 학술부장을 맡고 있었으며 시위도중 왼쪽눈을 실명했던 그리고 '김영삼 정권 타도, 조국통일만세'의 유서를 남기고 분신 사망한 오영권(여수수산대 95학번). 5월6일 동아리연합회 자치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집회에서 학교측의 '동아리연합회를 해체하겠다'는 발언에 개탄해 분신사망한 박동학(대구공전 92학번).

이들의 죽음에 대해 사람들은 많은 이야기를 한다.

시민 송진호(회사원. 47세)씨는 "제대로 생각이 박힌 사람이라면 부모님 생각이 나서라도 분신자살 할 수 없을 것이다"고 하며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감정적으로 죽음을 선택한 것 같다"고 말한다. 또 다른 시민은 "지금 김영삼 정권이 문민정부라는 간판 아래서 얼마나 못된짓만 했길래 학생들이 분신자살을 하겠느냐"며 "학생들이 자살을 하는 것은 그대로 내버려 두는 그런 것이 학생을 더 죽이는 것"이라며 공식사과를 해야 한다고 격분하는 시민도 있으며 "죽는다고 해결될 것도 아닌데, 그 심정 이해는 가지만 방법이 잘못된 것 같다"는 여론도 있다.

그러나 가장 큰 여론은 무관심이다.

노수석사건 이외의 일들은 거의 언론에 보도되지도 않았고,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는 학생들조차 몇명이 어떻게 죽어갔는지 자세히 알지 못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복학생들은 91년도와 비교해 보며 "91년도 4월에는 매일 집회가 있었고 모이는 학생수도 1, 2만명은 되었는데, 지금은 집회가 있는지도 모르겠다"며 의아해 한다. 한편 신입생들은 "분신자살은 전태일때 얘기인줄로만 알았는데 지금도 그런일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며 아예 대답을 회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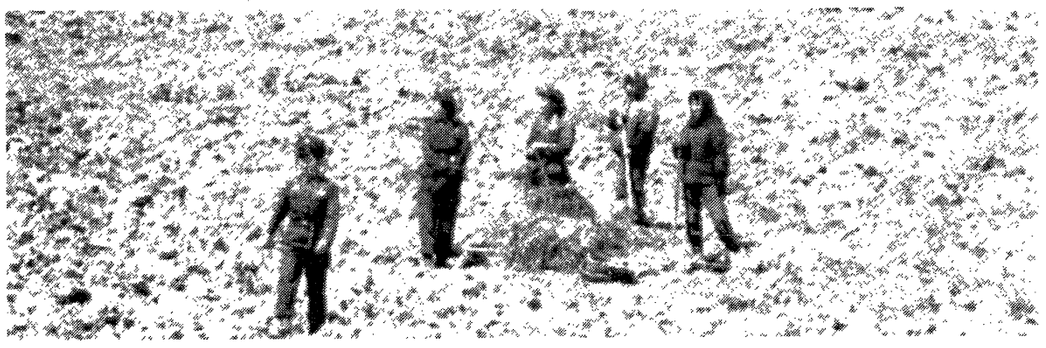
계속되었던 학우들의 죽음.

이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또한 그들의 죽음이 하나의 화살이라면 그것은 누가 쏘아보낸것이며, 어떤 과녁을 향해 쏘아진 것인가. 대답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관심을 깨뜨리고 우리 모두가 고민해 보아야 할 '화두'이기 때문이다.

〈김기영 기자〉

북한 식량난과 대북지원

비자금에 못미치는 돈 없어 넉달굶는 주민들



대북 식량지원문제는 탈냉전의 진전과 더불어 북미간 관계개선 등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 심각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것은 구조적인 경제위기 속에 만성적인 식량부족 사태에 시달리고 있던 북한이 엎친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여름 대홍수피해를 입음으로써 심각한 식량난 상태에 이르렀고, 결국 이로 인한 북한체제의 붕괴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사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우선 북한의 식량난 실태를 보는 외부 시선은 각각이다. 식량난에 관한 남한, 미국, 유엔의 통계수치도 각양각색이고, 식량난 문제를 접근하는 시각 역시 제각각이다. 물론 이는 북한당국이 1984년 이후 식량생산량에 관한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통계의 부재가 비과학적인 억측을 낳고 식량난 실태에 대한 심각한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필자의 계산 결과 북한의 올해 식량 총 수요량은 6백57만톤, 식량 총부족량은 2백31만톤으로 보인다. 여기에 공업용과 사료용 곡물을 뺀 '순 식량' 총수요량은 4백20만톤, 순수한 식량 부족량은 1백26만톤에 달한다. 이 순수 식량 부족량은 연간 전체 '순 식량'수요량의 33%, 전체 주민의 4개월분 식량, 원화로 환산하면 3천여 억원에 달한다. 결국 3천여 억원이 없어서 겪고 있는 북한의 식량난은 한국전쟁 때도 문을 닫지 않은 김일성대학이 휴교했다는 충격을 전한 한 북한방문객의 언급이 사실임을 확인시켜 주는 '식량대란'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식량난에 관련한 지원문제는 다음과 같은 두 측면에서 접근되고 있다. 먼저 남한의 민간단체나 유엔 등 국제기구에 의한 '동포애적, 인도주의적' 차원의 접근이다. 이는 지난해 대홍수피해로 수십만명의 수재민이 발생하고 대대적인 식량부족 사태에 직면한 북한의 실정을 감안하여 동포애적,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대북 식량지원을 해야 한다는 접근이다.

다음으로 남북한 및 미·일 정부 등에 의한 '전략적 접근'이다. 이는 다시 대북 식량지원문제가 남북, 북미, 북일관계 등 한반도 주변정세와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는 측면에서의 '국제전략적 접근'과, 남한과 미국의 국내선거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측면에서의 '국내전략적 접근'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접근에서는 각국의 전략적 이해에 따라 북한의 식량난 실태가 제각각 다르게 평가되는 한편 대북 식량지원문제에 있어서도 그 처방이 각각 다르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미·일 3국 공조체제 균열의 가장 큰 원인은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즉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이후 미국은 그간 취해왔던 '봉쇄'전략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에 편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개입'(engagement)전략으로 자신의 정책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정책변화에 따라 미국은 현재 식량난과 경제위기 등 고장난 비행기에 비유되는 북한체제의 안전한 '연착륙'(soft landing)을 도모하고 있다.

결국 미국은 북한체제가 붕괴했을 경우 이로 인한 동북아 지역의 불안정 사태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올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둔 클린턴 대통령이 북미관계 개선을 하나의 외교성과로 기록하기 위한 의도도 작용하고 있지만, 대북 식량지원문제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태도는 바로 이같은 미국의 대북정책상의 변화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이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에 비해 줄곧 강경정책을 고수해왔던 남한의 대북정책은 여전히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핵문제 이후 정부당국이 취했던 대북정책이 지나친 국내정치적 계산으로 정상적인 방향에서 추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4·11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을 비롯한 정치권 일반은 지난 6·27 지자체선거 당시 대북 쌀지원으로 인해 보수층과 농민층의 다수표가 이탈된 것으로 판단, 대북 식량지원문제에 대해 극도로 몸조심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미국과 한국의 대북정책에 비해, 일본의 정책은 그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그들은 미국의 대북정책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남한의 대북정책을 지나치게 넘어서지 않는 한도 내에서 북일수교를 비롯한 자신들의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은 남북한 2개 카드를 통해 탈냉전 시대에 들어서도 자신의 대한반도 헤게모니를 유지·강화코자 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일본 역시 미국 및 남한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추구하고자 할 것이다. 이렇듯 북한에 대한 미·일의 연착륙 공세는, 물론 그 방식과 형태는 과거와 전혀 다르지만 위기에 몰린 북한체제의 생존을 담보로 적극 모색되고 있다.

끝으로 대북 식량지원문제는 과거 냉전적인 적대감과 편협한 정치적 고려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탈냉전 시대에 즈음한 남북통일을 위한 민족화해의 차원에서, 나아가 대북정책을 통해 자신들의 대한반도 헤게모니를 강화코자 하는 주변 강대국들의 적극적인 공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요컨대 대북 식량지원문제는 탈냉전시대의 남북화해를 위한 중대한 계기로서 인식되고 그런 방향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김 용 현

〈본교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과정〉

시위봉쇄발언과 이후 학생운동향방

정부, 학생시위 강력대처···한총련도 강력대처 (?)

정부는 지난 7일 이수성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치안장관회의에서 불법폭력시위와 좌경학생단체들의 과격시위를 강력대처키로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르면 미신고 집회는 공권력을 총동원해 원천봉쇄하고, 신고된 집회라도 집회시간이나 인원 등 시고사항을 어길 경우 현장에서 해산조치가 내려진다.

이러한 '강력대처'결정을 발표하게된 경위에 대해, 정부는 "집단이기주의에 따른 집단민원의 폭력화와 학생·재야활동의 좌경화경향이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으나, 학생운동권과 사회일각에서는 다른 해석을 내리며, 정부의 경색적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사회학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있는 한 원생은 "시위원천봉쇄발언은 정부의 힘이 비교적 약화된 집권말기에 항상 나오는 식상한 얘기"라고 말하며 "강력한 정권을 창출해 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진 듯 하나, 과연 실효성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노태우, 정권말기인 1992년에 '강경대사건'이 원인이 되어 전국적으로 수십만명이 궐기하는 정권출범후 최대의 시위가 전개됐다. 이런 시위속에 10명이 달하는 학생들의 독재타도를 외치며 목숨을 끊도했다.

현재 학생운동의 양상은 당시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육재정확보'를 주장한 지난 3월 29일 한총련 총궐기서 폭력진압속에 노수석군이 숨졌으며, 그후 5명의 학생들이 '반정부'를 외치며 목숨을 끊었다. 그 후에도 한총련은 '대선자금공개'를 필두로 하는 열사투쟁을 계속 벌였었다.

이러한 학생운동의 양상속에 정부는 시위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강공법을 시도했으며 이와함께 학생운동권내 소수인 전학련의 지난 3월 공산주의발언 등을 크게 부각해, 학생운동권을 좌경화로 몰고가려는 의도를 내비쳤다.

같은 맥락으로 유병문학생회장이 한총련 산하 조국통일위원장을 맡고있는 우리학교의 경우, 안기부의 감시 또한 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철(야간강좌경제4)학자투위원장은 "사복경찰의 학내사찰이 확인됐으며, 본교에 대한 전담반이 안기부에 꾸려졌고, 유병문 학생회장 내사와 미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정부의 강공법에 본교총학생회와 한총련역시 강력대처(?)키로 결정했다. 본교는 치안장관회의 이틀 후인 지난 9일 서울중구 당선자 박성범(신한국당사)의 불법선거를 항의하는 평화시위를 벌였으며, 서울시경의 불허방침으로 본교재학생 31명이 심한육설과 구타속에 연행됐다. 같은날 서총련산하 단국대·연세대학생들이 신한국당 당사를 항의방문했다.

현재 한총련은 앞으로 8·15민족공동행사를 대비해 3회에 걸친 총궐기를 준비하고 있다. 5·18관련 1차 총궐기, 한총련출범식에 맞춰진 2차 총궐기, 87년 6월투쟁에 기인한 6·10민중대회인 3차총궐기가 바로 그것. 모두 정부의 불허방침이 예상된다.

학생들의 시위가 화염병 등을 자제하는 평화시위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에 정부의 이와같은 발언은 학생운동권의 힘에 정부가 밀리는 듯한 묘한 여운과 "과거 유신 5·6공때와 현재의 상황이 크게 다를 바 없다"는 한 학생의 말을 떨칠 수 없게 한다.

한편, 정부는 "집단민원의 폭력화가 방치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고 밝혔으나, 그러한 폭력화 역시 정부가 제공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강제철거의 경우, 도시빈민의 생존권이 걸린 민감한 사안인 만큼, 빈민배려책을 발표하지 않는 상황속에 무조건적 봉쇄만 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책임회피로 느껴진다.

〈한누리 기자〉

동악로

열린 학교

"애들이 너무 많아서 한 3시쯤먹지" "하지만, 줄서기도 귀찮고, 너무 복잡해서···"

장충공원을 걷다가 컵라면 하나로 식사하시는 두분의 할아버지를 만났다. 약수동에 사신다는 할아버지, 그분은 근 2년째 동국관 학생식당에서 점심을 드셨다고한다. 작년에 시권 친구분과 같이 항상 쉬엄쉬엄 정문을 올라가셔서 식사를 하신다고 한다.

학교의 바로옆에 있는 장충공원에는 이런 분들이 꽤 많다. 장충공원파출소에 노인정이 있는 이유도 있으려니와 행동반경이 좁은 이근처의 노인들이 소일삼아, 친구들을 찾아 이곳 장충공원으로 몰려드는것이다. 그분들은 모여서 윷놀이를 하기도 하고, 장기, 바둑등으로 소일을 하신다. 한켠에서는 옛날에는 유행했음직한 노래들이 흘러나오고, 건빵을 안주삼아 술을 마시는분, 신문지를 얼굴에 덮고 주무시는분, 차가운 도시락을 드시는분등, 하루하루를 무료함으로 지내신다.

그분들이 지루하게 지내는 그시간, 바로위의 학교에서는 개교 90주년기념행사가 5월한달동안 바쁘게 치러진다. 개교기념사는 많기만하다. 열린음악회, 윤이상음악제, 국보보물전, 개교기념무료급식등이 진행된다. 그러나 이행사들은 단지 학생, 동문만을 위한 자리인 것같은 인상을 준다. 극소수의 외부인만이 우리의 잔치에 참여를 한다. 지역의 대학으로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해야하는 대학의 의무로서나, 불교 종립학교로서의 위상으로서나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너무 망각하고, 제 흥에 겨운 집안잔치를 하는것이 아닌가 한다. '참사람 열린교육'을 표방하는 우리에게는 장충공원의 노인들에게 열릴 여유는 없었나보다.

장충공원에 있는 수많은연등을 노인들은 그저 무심히 바라보고있다. 그 연등에는 우리의 90년과 그몇배의 미래가 담겨있다. 그들은 옆에서 들려오는 떠들썩한 풍악소리와 기름진 음식냄새를 맡으며 무엇을 생각할까?

이제 신록이 무르익을대로 무르익었다. 학생들의 풍물과 총장님의 구성진 민요가락이 노인들의 걸걸한 웃음소리와 함께 장충공원에서 울릴날도 머지않았다. 바로 10년후가 개교 1백주년이기에···

(최승일 기자)

생활속에 향기를 더해주는 - 동서식품
대동제를 축하드립니다.

신분을 숨기고 찾아간
축제에서 시작된
황태자의 첫사랑

황태자라는 신분을 숨기고 찾아간
하이델베르그의 축제자리.
흥겨운 축제에서 황태자는 그만
평범한 웨이트레스 아가씨와
운명적인 사랑에 빠집니다.

축제가 없었다면 운명적 사랑도 존재할 수 없었다.

사랑을 위해 황태자의 신분과 지위를
모두 버리는 황태자의 첫사랑.
사랑에는 아무런 조건과 신분도 장애가 될 수 없다는 걸 보여준
이 운명적 사랑은 바로 축제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을 조금 늦추는 자리.
일상이 주는 단조로움을 걷고 단 며칠 즐겁게
흥얼거리는 자리. 들뜬 마음과 호기심을
재치있게 즐기는 자리.
오늘도 축제는 우리의 마음을 신나고 조금은
두근거리게 만듭니다. 황태자와 그의 여인이
운명적으로 만난 것처럼 눈부신 5월의 햇살과 젊음이
넘치는 축제에서 그런 운명적인 만남이 한번쯤 나를
찾진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싱그러움이 똑똑 묻어나는 대학축제 그 자체가 바로
대학생 여러분의 특권이자 운명인 것을 축하 드립니다.
지금 당신곁에 마음에 드는 누군가가 있다면
커피한잔을 건네 보세요.
남아있는 대학생활이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동서식품

영화 '유리'를 둘러 싼 논쟁

'칸느 영화제'라고 하면 영화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알정도로 명망있는영화제다. 그리고 거기에 '비평가 주간'과 '황금 카메라상(최우수 신인감독상)', 그리고 '칸느포럼' 등 3개의 부문 후보에 영화를 올려 놓았다는 것은 그 영화의 완성도와 작품성에 대한 믿을 수 있는 척도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애석하게도 그 영화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박상륭 원작의 '죽음의 한 연구'를 영화화한 '유리' 얘기다.

3월에 국내개봉 예정이던 '유리'는 지난 2월 22일 공연윤리위원회(이하 공윤)에 심의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윤은 2월 26일 1차 심의에서 주인공인 수도승이 불교를 연상시키는 법복을 입고 촬영한 살인장면과 정사장면을 문제있다고 지적하고 3월 12일 불교계 인사들을 초청해 다시 시사회를 가졌다. 그 결과 대다수의 불교계 인사들이 "가상적인 공간의 얘기지만 복장이나 어법등 여러가지 요소가 실제 불교와 비슷해 불교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다."며 영화의 시나리오 몇몇 부분을 수정해 주었으면 한다는 입장을 비쳤고 공윤은 시사회가 끝난 뒤 영화사와 불교계와의 타협점을 찾아 이를 공윤에 통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양윤호 감독은 "이야기 구조상 꼭 필요한 장면들이고, 이를 가위질 하면 작품 자체가 우습게 될 것", "필름을 버리면 버렸지 자를 수는 없다"라며 공윤측과 불교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다. 그러던 중 칸느 영화제에 공식초청이 있자 공윤은 '칸느 영화제에는 그대로 나가고 국내에서만 잘린 필름으로 상영하라'는 타협점을 내놓았지만 하명중 영화사측은 '이것 역시 편집해 놓은 오리지널 필름을 자르면 늘리는 복원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소리'이며 공윤측의 얘기대로라면 '잘린 필름으로 문체부의 추천도 받고 해외영화제에는 어떻게든 복원해 나가라'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영화법상 문체부의 추천이 있어야 수출과 해외 영화제 출품이 가능하다. 그리고 최소한 이번주 초까지는 심의가 통과되야 영화제에 출품이 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만약 이런 대립이 장기화 될 경우 단지 영화제에 출품을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영화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는 영화인들의 목소리가 높다. 종교와 예술과의 입장의 차이가 대립되는 것은 비단 이번만은 아니지만 제발 이번만은 서로의 이해 속에서 올바른 결론으로 이끌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러나 아직 팽팽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유리'문제가 어떻게 풀려나갈지는 두고 볼 일이다.

〈김상만 기자〉

잘라라! - 자를 수 없다!

특정 종교에 피해있다 —공윤측
극 전개상 더 자를 부분 없다 —영화사측

영화계 상상력의 자유 허용해야

영화가 뭔가. 뭐 그리 대단한 건 아니다. 나같이 영화로 밥먹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영화가 뭐 그리 대단한 신성의 영역에 속한다거나 사람 사는 이치에 크게 어긋나도 된다는 면죄부를 받은 귀물로 여기지는 않는다는 거다.

하지만 막강한 경제 효과를 내는 오락산업으로서의 가공할 만한 엔터테인먼트외에 가장 부드럽고도 노골적인 선동으로, 발언으로, 자기 존재에 대한 우울한 성찰로, 아니면 이도 저도 소용에 닿지 않는 심미적 잉여 그자체로 우리 영혼을 울리는 영화를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랴.

영화는, 아니 영화야말로 20세기말을 사는 인간이라는 종의 발랄하고 한심한 상상력과 땀내나는 노동의 결합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인류사적 전리품인 것이다.

우주를 나르고 바다를 휘젓는 괴물이 등장하는 동화같은 SF에만 상상력이 필요한 게 아니다. 인생의 갈피를 묘사하는 모든 장면화에 상상력은 무차별적으로 동원되어야 한다. 검열은 이데올로기에 의한 자기검열이든 무식한 가위질이든 나쁘다. 나쁜 이유야 검열이 필요한 이유 만큼 100가지도 넘게 댈 수 있겠지만 단 한가지 저 결정적인 상상력에 미리 족쇄를 채우고 나중에 또 그 상상력의 결과에 재갈을 물린다는 점만으로 이중으로 아주아주 나쁘다.

이번 '유리'를 심의하면 공륜은 자신의 '검열의 상상력(?)'에 까지 위배되는 일을 저질렀다. 일반에 전혀 공개될 순서가 아닌 시점에 뭔가 수상한 구석이 있는 부분의 검열을 가장 민감한 이해당사자(?)라 판단되는 불교계에 슬쩍 떠넘긴 것이다. 불교계는 우리 머리통속의 감시자가 될 수 없다. 그것은 대중적 정신에 위배된다고 감히 생각한다. 경찰에 대해 모욕적인 영화는 경찰청 시사를 하고 매춘을 다룬 영화는 청량리에 가서 시사를 해야할까? 전문적인 심의기구라는 공윤에서도 아리까리한 부분을 누가 기준을 정하나?

일제시대의 조선 영화령에서부터 유구하게 계속된 검열의 역사를 한때의 해프닝으로 몰릴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하루라도, 한편의 영화에라도 덜 적용되게 빨리 없애야 한다. 상상력은 미래 영화 자산일 뿐 아니라 영화를 보며 또한 상상력을 키우는 주인공이 될 세대들의 자양이다.

상상력을 제한하고 갉아먹는 우리 머리등 내외의 감시자들은 미래 사회의 경쟁력 까지도 갉아먹는, 사회의 총체적인 안녕에 위협을 미치는 공적이다.

물론 부작용도 있을 것이다. 그 경우에 맞는 훌륭한 우리 속담이 있다. '구뎌기 무서워 장 못 담그랴.'

〈황윤경 이우영상기획실장〉

불교계 특정종교 입장 고려해야

감독과 배우는 물론 제작진 전부가 20대로 구성돼 영화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되던 독립영화 '유리'가 개봉을 앞두고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에 걸려 진통을 겪고 있다.

박상륭의 원작소설 "죽음의 한 연구"를 바탕으로 제작된 젊은영화 '유리'는 제작초기부터 실험적 영상미와 참신성 등으로 화제를 모아왔다. 이 영화가 문제시 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3월 중순부터이다. 3월말 개봉을 예정으로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공연윤리위원회측에서 영화중 삽입된 수도승의 살인, 정사등 파계장면들이 불교계의 반발을 불러 일으킬 우려의 소지를 들어 본심의에 앞서 불교계인사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시사회를 열것을 제작사인 하명중영화사 측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12일 시사회를 가졌고 이 자리에 참석했던 조계종 총무원 스님들은 이 영화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문제의 장면들에 대한 삭제를 하명중영화사측에 요구했다.

이에대해 양윤호 감독과 하명중영화사 측에서는 '유리의 주인공이 수도승이긴 하지만 현실과는 다른 영화속의 일이기 때문에 실제 불교의 모습과는 분명 다르고 이 장면 역시 수도승의 관념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어서 문제될것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미 문제가 될만한 장면은 삭제 되었으며 영화의 구조상 꼭 필요한 부분만 남아 있어 더 이상의 삭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런 감독과 영화사측의 입장에 불교계는 영화상에서 수도승이 파계하는 장면의 전면 삭제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우선 아무리 영화라 할지라도 수도승의 파계장면은 불교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영화를 관람하는 관객들이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에 빠져들어 기쁨과 슬픔, 분노, 편안함등 각종 감정을 느끼는데 이것이 어떻게 현실과 다르냐는 논리이다. 또 이 파계의 장면이 관객들에게 불교의 모습으로 비춰질때 입을 불교계의 타격은 실로 엄청날 것이라는 이야기다. 최근 일부 언론기관의 불교에 대한 편향적 보도와 프로그램 편성으로 불교계의 항의가 빗발치는 상황에서 불교계의 이러한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영화 '유리'가 가지는 우리 영화사의 의미나 칸느영화제 출품을 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문제의 해결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나 영화가 가지는 사회적 파급력과 영화의 사회적 역할에 비추어 볼때 특정종교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주지않는 방향으로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이석증 조계신문 편집장〉

서로의 이해로 바람직하게 마무리 되기를

이런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자. 어느 영화감독이 당신의 어머니를 모델로 영화를 찍겠다고 나섰다. 당신의 어머니를 통해 한국의 어머니상을 재현하겠다는 제작의도와 함께. 별 문제 있으랴 싶어 당신은 영화가 제작되도록 내버려 뒀다. 어머니의 아름다운 삶을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으니 좋은 일 아니냐고 내심 기뻐하면서. 그런데 찍어 놓은 영화를 보니, 세상에! 당신의 어머니가 외간 남자와 불륜을 맺는 장면이 들어 있었다. 설령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당신 모르게 벌어졌다고 해도 그렇다. 어떻게 내 어머니의 벗은 몸이 대형 스크린에 등장하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있겠는가! 당신은 분연히 일어나 외친다. '형님, 누님, 아우들아 갑시다! 가서 본때를 보여줍시다! 영사기를 몸으로 막아서라도 상영은 막읍시다!' 십중팔구 당신의 반응이 그런 것이 아닐까.

영화 '유리'를 둘러싸고 빚어지는 갈등이 또 우리의 골머리를 아프게 한다. 표현의 자유, 또는 예술의 자유를 옹호하는 무리가 한 편을 이루고, 그 반대편에 '신성모독 불가'를 외치는 불교계가 대치하고 있다. 이미 몇번 돌팔매질은 쌍방간에 벌어졌고, 잠시 후면 진짜로 육탄전이 벌어질 태세다. 싸움 구경처럼 재미있는 것도 세상에 없다고 했는데, 나는 이 싸움이 별로 재미있지가 않다. 순수한 구경꾼만으로 남을 수 없는 신분 때문이다. 병색이 시인으로서, 나는 표현의 자유를 밥먹는 자유만큼이나 귀중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정식으로 불교도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는 부처 앞에 합장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대부분의 스님들을 존경하는 착한 중생의 한 사람이다. 어느 편을 들어야 하나. 어느 편을 향해서도 돌을 던지고 싶지 않은데, 그러다간 자칫 양편에서 날아오는 돌을 가운데에서 고스란히 맞아야 할지도 모른다.

아주 옛날, 원시인의 동굴벽화로부터 경주의 석굴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성가족성당'에 이르기까지 종교예술의 아름다움은 우리를 감동시킨다. 종교예술이라는 말 그대로 그때 종교와 예술은 서로 갈등하지 않는다. 갈등이 아니라 처음부터 '한 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또 '신성모독'은 예술의 영원한 주제 중의 하나로 우리를 전율케한다. 금기를 깨뜨리는 데서 오는 쾌감, 그리고 무너진 금기를 딛고 나아가는 진보의 발걸음. 인간에게 금기를 깨려는 욕망이 없었다면 지금의 진보가 가능했을까. 돌로 부처를 만든 것조차 사실은 부처의 금기를 깨뜨린 것이 아니었던가.

언젠가 '비구니'라는 제목의 영화가 불교계의 반발에 부딪쳐 결국 제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좌초한 일이 있었다. 어쩌면 그때 '이겼다'는 기억이 지금 '유리'의 대폭 삭제 또는 상영금지 주장과 연결되어 있는지도 모르겠다. 종교의 신성함을 지켜야 한다는 종교인의 마음은 얼마든지 이해하고도 남는다.

'나와 다른 남'은 용서할 수 없다는, 아니 아예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 세상의 온 갖 다툼이 벌어진다. 심지어 관용을 교리로 하는 종교에서조차 서로를 있을 수 없는 존재로 내몰아 피흘리는 싸움을 벌인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나야, 그러니 너도 너지' 하면서 돌팔매질 대신에, 그 돌로 사이좋게 탑쌓기를 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아는 불교는 충분히 그런 힘을 가진 종교인데… 관용은 결코 의무가 아니다. 그 어떤 자유보다 귀중한 자유다.

조병준(시인·문화평론가)

뒷골만필

원초적 분노

김 형 균

경주시는 30여만평의 유적지를 경마장으로 만들고자 애를쓰고 있다. 경주시민과 군민 20여만명을 대상으로 경마장을 만들리는 없고 아마도 연간 6백만명이 넘는 관광객의 주머니를 노린 정책일상 싶다.

세계적으로 열손가락안에 꼽히는 고도이어서 흠망의 대상인 경주는 누구나 또 오고 싶어 할 만큼 아름답고 고귀한 신라 천년의 유적이 곳곳에서 경탄을 자아낸다. 외국의 관광객이 보고 싶어하는 바로 그것들이 말이다.

서울의 경마장은 홍콩이나 서구의 그것과 비교하면 유치하기 짝이 없는 마종과 시설일 뿐인데, 하물며 신생의 경주 경마장이 얼마나 우수할 수 있어서 관광객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까 궁금한 일이다. 세계 10대의 문화도시를 보러 외국만리 경주까지 와서 경마를 하려고 할까마는 아마도 당국자의 머리에는 굉장한 아이디어로 떠오른 모양이다.

고대의 유적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이 없음을 탓할 수는 없지만 나라와 시의 살림을 맡은 이들이 어긋나도 이처럼 어긋난다면 과연 믿고 맡길 수 있는 것인지 '원초적 울화'가 치밀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머리를 가지고 고속철도 경주 구간 도심을 관통하게하는 아이디어를 내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관철시킬려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혹세무민하고 있는것이 또한 작금의 상황이다.

처음에는 15m높이의 고가철도로 설계했다가 문화계, 언론이 발칵 뒤집히니까 6m로 낮추었다가 다시 30m지하로 요즈음은 40-50m지하로 자꾸만 기어들어 간다.

본교 경주 캠퍼스 병원 80m 옆으로 철도를 설계했다가 지하로 숨어들은 일이 93년의 일인데, 그 3.5㎞ 구간이 요새는 8.4㎞로 늘어났다. 그래도 경주 남산 삼릉계 쯤부터는 다시 지상으로 올라오니까 한국 최고의 불교성지쯤은 몰가치하게 보는 안하무인의 대상이 되었다.

절대, 결코, 고속철이 건설교통부의 계획대로 시행되어서는 안된다.

경주 남산이 경마장보다 못한 대접을 받게 해서는 안된다.

우리 불자가 한사람이라도 이땅에 존재하고 있는 한.

불지사 대표

한국인의 무한에너지, 그 땅에 간다 - (2)고구려 광개토대왕편

■광개토 대왕비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장수왕이 414년에 세운 높이 6.39M의 거대한 석비로 예술적,역사적으로 소중한 자료이다 (현재 소재는 중국 길림성 집안현 태왕향)

동으로 서로 북으로.... 아, 그 광활함이여!

광활하고 드넓은 중국땅을 지배하던 고구려가 있었습니다.

오늘,우리는 광개토대왕의 기상을 물려받은
자랑스런 한국인으로 다시 서야 합니다.

알렉산더는 37세의 나이에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우리에겐 18세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라
드넓은 중국땅을 손 안에 둔 광개토대왕이 있습니다.
밖으로는 영토를 넓히고 안으로는 백성을 평안하게
보살필 줄 알았던 광개토대왕-
동으로 숙신(肅愼),서로는 후연(後燕),북으로 비려(碑麗)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지녔던
장군이자 임금이었습니다.
만인의 귀감이 되었던 그는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분입니다
아시아 속의 고구려,세계 속의 한국인의 위상을 이루어낸
그 기개가 오늘, 한국인의 무한에너지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이게 하는 발걸음-버팔로가 함께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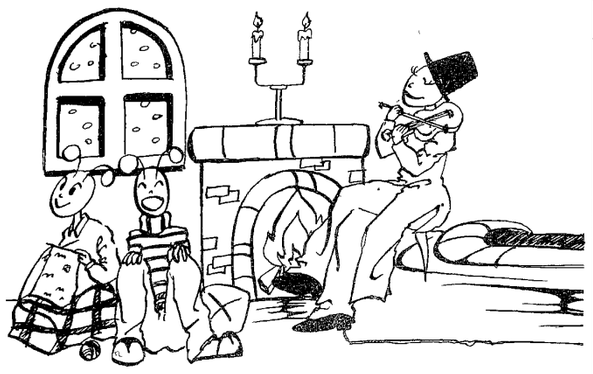
outdoor shoe Buffalo

토탈패션의名家 금강製靴(株)

'96 아틀란타 올림픽 공식 후원사 Kumkang

Atlanta 1996

새로쓴 '개미와 베짱이'의 세태풍자



휴식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예술가의 존재이유 설명

김 한
(문과대 영문과 교수)

이것은 개미집 문앞에서 얼어죽은 베짱이가 평생 가슴에 걸려 새로 써 본 '개미와 베짱이'이야기이다. 원전은 널리 알려진 이솝우화이다. 무더운 여름날 개미들은 잠시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그 동안 베짱이는 바이올린을 켜며 노래만 부르는 것까지는 같다. 그 다음부터 원전은 이렇게 쓰고 있다.

나무그늘에서 노래를 부르던 베짱이는 개미더러 일만 하지 말고, 와서 쉬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개미는 묵묵히 일만 하였습니다.

추위가 닥쳐오자 먹을 것도 없고 갈 곳마저 잃은 베짱이는 개미에게 도움을 청하러 찾아갔습니다.

"개미님, 먹을 것도 갈 곳도 없으니 도와주세요" 개미집 문간에서 베짱이가 말했습니다.

이때 개미가 문 안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 당신은 놀기만 했지요. 다른 데 가 보세요"

베짱이는 곧 추위에 얼어죽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가치있는 것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미래를 위해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부터 구출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이의 모색은 오늘날의 서구문화가 안고 있는 숙제이기도 하다. '세계화'의 기치아래, 서구문화의 배설물까지도 급속도로 직수입하고 있는 시장이 되어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숙제임은 물론.

'개미와 베짱이'에서 개미는 엔지니어요, 베짱이는 예술가로 해석된다. 개미는 실질적인 일을 하는 자요, 베짱이는 소위 현실적인 인물이 아니다. 개미가 먹이를 날라다 곳간에 쌓는 일을 수행하는 동안, 내내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예술가가 베짱이라면, 개미가 베짱이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은 보류될 필요가 있다.

개미의 생활. 자칫, 단조롭고 지치기 쉬운, 그리하여 죽음과도 같이 될 수 있는 그의 생활에 베짱이는 생기와 구원적인 기쁨을 불어넣어 준다. 겨울이 되어 떨고 있는 베짱이는 철을 못만난 예술가로 해석된다. 새로 쓴 '개미와 베짱이'에서, 겨울에 개미가 베짱이에게 제공한 빵은 결코 우월한 자의 열등한 자에 대한 '베품'이 아니라, 소중한 친구에게 지금 가장 필요로하는 것을 찾아내어 줄 줄아는 아름다운 '선물'이다. 이러한 '만남'이 이루어진 개미와 베짱이는 겨울눈보라속에서도 같이 노래하고 춤춘다.

일찌기 파스칼은 '광세'에서, 휴식을 알지 못하는 점이, 인간불행의 근원이라고 지적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한가한 곳에 있으되, 한가함을 위해 한가함을 포기하는 인간의 모순을 개탄했다. 휴식없는 인간은 이미 자신을 알지 못한다. 근대세계가 보여주는 노동의 지나친 강조속에서, 인문교육보다 실업교육을 더 높이 평가하며, '인간'교육은 '직업'교육 '유용성'교육에 의해 억압받고, 자유와 기쁨의 분위기를 주변을 위해 마련하는 인간대신, 오로지 전문가(저 부지런한 엔지니어인 개미)만이 등장한다.

유용성의 관점에서 볼 때, 유희와 여가를 위해 사용된 시간은 낭비된 시간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실로 삶에는 유용성만이 아니라, 축복도 있다.

김 한 교수의

개미와 베짱이

개미의 단조로운 생활에 활력을 넣어준 베짱이

무더운 여름날 개미들은 잠시도 쉬지 않고 먹이를 물어다 굴속에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땀은 솟구치고 해는 뜨거웠습니다. '큰일인 걸. 할 일은 한참 남았는데, 벌써 이렇게 허리가 아파오니…'

아직도 오늘이 끝나려면 반나절이나 남았습니다. 개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감미로운 바이올린의 선율이 서늘한 바람을 몰고 오듯 개미의 귓전에 와 닿았습니다. 그것은 베짱이가 켜는 바이올린 소리였습니다.

마치 아픈 데를 어루만져 주는 부드러운 천사의 손길이 와 닿은 듯, 개미는 몸과 마음이 새로워짐을 느꼈습니다. 음악에 따라, 개미에게서는 저절로 콧노래가 나왔습니다. 다른 개미들도, 바이올린의 가락에 따라 발을 맞추며, 먹이를 날랐습니다.

고된 일을 끝낸 개미가 잠자리에 들면, 베짱이가 켜는 바이올린 소리가 창을 타고 흘러 들어와 아름다운 자장가가 되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개미는 여름 내내 먹이를 물어다 굴속에 저장하는 일을 계속했고, 베짱이는 또한 여름 내내 바이올린을 켰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날이 추워졌습니다. 개미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그간 모아놓은 먹이를 먹으며 쉬었습니다. 긴 겨울을 이렇게 쉬며 지낼 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일은 안하고 쉬기만 해도 되는 이제, 왜 그렇게 하루가 길고 지루한지요. 마음은 허전하기만 하고요.

아, 언제부터였던가요? 베짱이의 바이올린 소리가 그친 지는.

개미는 외투를 걸치고 베짱이를 찾으러 나섰습니다. 베짱이가 노래하던 나무 등걸의 잎새는 어느새 다 떨어지고, 벌거숭이가 된 나무가지에 겨울바람만 차가웠습니다.

개미가 만난 베짱이는 추위에 파랗게 되어 있었습니다.

'베짱이님, 왜 이제는 노래를 안 들려주세요? 우리는 베짱이님의 노래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개미의 말에 베짱이가 대답했습니다.

'여름 내내, 바이올린만 켰더니, 이제 겨울이 되고 보니 먹을 것은 없고, 방에 불을 못 넣으니…추워서 손가락이 굳어져 말을 안 들어요.'

개미는 베짱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우리 집으로 오셔요. 여름에 모았던 음식을 나누면서 겨울을 저희 집에서 지내셔요. 저희들이 힘든 일을 할 때 베짱이님이 그렇게 열심히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해 줘서 얼마나 도움이 된 줄 몰라요.'

개미의 집에서는 베짱이의 바이올린 소리가 울려나왔고, 이제 베짱이의 노래를 따라 같이 노래하는 개미에겐 겨울은 하나도 지루하지 않고 즐겁기만 했습니다.

창밖에선 떨어지는 눈도 함께 웃는 듯 했습니다.

달하나 천강에

구름·바람같이 살다 가라하네

머문듯 흘러가는 것이 세월이라지만 어느덧 오월이 되었다. 며칠전 동료교수와 환담을 나누던중 화제가 나의 건강문제에 머물자, 나는 '신체발부(身體髮膚)는 불감훼상(不敢毁傷)'이라는데, 지난 4월에 받은 수술로 또다시 부모님께 불효를 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웃어 넘겼다.

사실 이제는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강의실에서의 목소리도 수술받기 전으로 회복되어가고 있으나, 나에게 있어서의 지난 3, 4월은 인생에 있어서의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이를 준비하여야 되는것이 아닌가 하는 절박한 순간의 연속이었다. 나는 지난 3월 하순 시내모병원에서 종합건강진단을 받던 중 대장에서 제법 자란 폴립을 발견하게 되었고, 진찰한 담당의사는 조직검사를 하여 보아야만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으나, 일단은 악성종양으로 생각하고 치료를 하여야 한다며, 즉시 수술을 하도록 수술날짜를 정하였기에 나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수술관계로 휴강한다는 말을 직접하지 못한채 입원하여 수술을 받게 되었다.

이제는 60고개를 바라보게 된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주위에서 건강하다는 말을 듣도록 하루 24시간을 교대도 없이, 그것도 한 순간도 쉬지않고 가동을 하여준 내 몸의 장기에 감사를 하고 싶다. 아무리 무쇠라 한들 정밀기계라 한들 이제까지 큰 고장없이 지내오게 하였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어느 공장에 붙여져 있는 구호처럼 '닦고, 조이고, 기름칠'을 좀더 열심히 하여 오늘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였으면 좋았을 텐데하는 후회가 들기도 하였다.

마침내 입원을 하게 되고, 그날이 음력 열사흘날이라 병실 창밖의 달빛이 나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며, 한줄기 눈물을 흐르게 한다. 내 사랑하는 처와 자식들, 주위의 친구들, 제자들의 얼굴이 창밖에 어른 거린다. 이들에게 빚을 지고 떠나지는 말아야 할텐데.

나는, 굶는것을 밥먹듯하던 어린시절 전라선의 3등야간열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와 오늘 이 순간까지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행복찾기에 열중하다 보니, 주위에 마음의 빚을 잔뜩지게 되었다. 문득 옛날에 읽었던 미국의 경제학자인 '유진스타이더'의 행복지수가 생각난다. 그는 행복지수를 '행복=소유/욕망'이라는 수식으로 표시하였다. 마음을 비우면 모든것이 즐겁고, 행복할 텐데, 그러질 못하고 한없는 욕망을 찾아 뛰다보니 구불득고(求不得苦)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오늘 이 병실에 있구나 하는 생각에 새삼 후회가 된다.

담당의사의 완치되었다는 말을 들으며 퇴원하던날(그것도 조직검사결과 양성이라는 말과 함께) 막내가 운전하는 차의 뒷좌석에 앉아서 하늘을 쳐다보니, 나옹선사의 시의 한구절이 생각난다. '구름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박 영 길 법과대 법학과 교수

동아리 문화읽기 마지막

서울·경주캠 전분과 총론

90년대 맞는 대학문화의 '환경설정'요구

동아리·학회등, 시대변화에 부응한 다양한 행사 마련해야

더 이상 '대학문화의 부재'에 대한 얘기는 진부하다.

80년대 '학생운동=대학문화'로 여겨졌던 시대를 넘어서면서, 90년대는 대학문화 상실을 얘기해 온 것이다. 그것은 학생운동이 활성화됨으로써 정치의식이나 공동체의식이 강화될 수 있었던데 반해, 90년대 들어서면서 그것이 점차 표면상으로는 부진해지면서 그러한 의식들은 약화되어 버린 것이다. 바로 그 속을 틈타 대학가에서 상업문화가 즐비하게 들어섬으로써 대학생들은 소비지향적이되고 따라서 '대학문화 부재'의 담론이 계속해서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제, 90년대 현재 대학에서의 활동 중, 정치의식과는 동떨어지더라도 동아리인은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이다. 그것은 학부제가 실시되면서 과에 소속되지 못한 오갈데 없는 신입생의 경우 어떤 소속감이라도 느낄 수 있는 동아리를 찾게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한 대학내 문화현상을 읽어내기 위해 문화부에서는 '동아리 문화읽기'란 기획시리즈를 7회에 걸쳐 엮어낸 것이다. 경주캠 문예분과를 시작으로 서울캠 사회분과까지 각 캠의 겹치는 분과를 제외하고 동아리연합회에서 기준한 분과 별로 구분지어 그 분과의 특징, 성격 등을 파악해 보았다. 각 분과의 공통적인 성격이 어떠한 식으로 대학문화 현상에 반영되는지 본 것이다.

각 동아리는 모임의 취지에 맞게 행사하고 실천한다. 그러나 매년 판에 박힌 행사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새로움의 추구를 위한 고민은 좀체로 찾기가 어려웠다.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동아리행사나 사업은 분과차원의 연합이나 어떠한 형태로든 새로운 사업의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한편, '동아리 문화읽기'에서 따로 다루지 못했던 모임이라는 성격에서는 비슷하나 일반 동아리와는 다른 '학회'가 있다. 정동아리에 소속된 학회도 있으나, 소속되지 않은 과, 단대단위의 학회가 주이다.

학회는 본래 80년대 초반 독재정권 통치하에서 억압받는 현실사회의 본질적인 모순을 분석하고 개혁하기 위한 것으로 이제는 현실의 변화에 따라 조금씩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 이 또한 대학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과학, 문화현상이나 이론 등에 대해 학습 토론하는 모임으로 학내외집회 등에 선전 선동하기도 한다. 경주캠 경우 아직은 두드러지는 활동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나, 학회의 체계화와 활성화를 위해 '학회연합'의 가능성도 보이고 있으며, 학회의 활동이 대학문화를 주도하는데 있어 예전의 취지에서보다 현재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대학문화를 주도하려는 움직임은 앞으로 눈여겨 볼 만하다.

학부제 실시로 인해 동아리나 학회에 관심이 집중되는 현재의 정서에 맞게 이전과는 다른 사업을 준비하고 활성화시켜 다시 대학문화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게 새로운 환경설정이 필요하다. 그것은 현재의 대학문화흐름에 역행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흐름을 이용하여 나름의 대학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90년대 중반을 넘긴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 여겨진다.

〈박묘선 기자〉

◇도서 신청률, 왜 저조한가

교수·학생 관심 보여야

중앙 도서관(관장= 정병조·국민윤리학)은 연중 수시로 본교 교수와 학생들로부터 필요한 도서를 신청을 받아 보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 신청 수가 적다.

도서관측은 이런 추천 도서 신청을 잘 모르는 신규 교수와 학과별 교수에게 도서 신청을 늘리기 위해 매번 도서를 신청해 달라는 공문과 작년도 추천 도서 구입 내역을 함께 보내고 있으나 교수들의 호응은 저조한 실태이다. 또,도서 신청을 하더라도 별 생각 없이 불필요한 도서를 신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 연구나 학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책을 구입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신청이 저조한 상황에서도 도서 신청이 잘되는 학과들도 있다. 독문학과, 영문학과의 경우 매년 학과 전체의 교수가 논의하여 연구 활동과 학생들의 공부에 필요한 도서를 신청하고 있으나 그 밖의 학과들은 도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1학기의 절반이 지난 지금 추천도서 신청 현황은 본교 전체 학과,계열중 절반이상의 교수가 전혀 추천도서를 신청하지 않고 있으며 작년의 경우도 광고학과, 체육교육학과등 6개 과는 전혀 신청하지 않았다.특히 작년에 신설된 학과중 유일하게 신문방송학과만 47책이 신청되어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을 뿐 중문학과,광고학과는 지금까지 도서관에 전공기초 도서가 신청되지 않아 도서관에 필요한 책이 없는 상황이다.

도서신청 기피의 원인은 도서관측에 추천도서를 신청해도 책이 제대로 구입이 안 될것이다라는 선입견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는 교수가 학과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필요한 책에 대한 고민과 열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도서관측의 한 관계자는 교수들의 추천도서 신청이 저조한것에 대해 '도서신청에 대한 홍보는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교수들이 도서구입에대한 선입견 때문에 신청을 하고 있지 않은 것같은데 추천한 도서는 1백퍼센트를 구입하고 있다'며 교수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학생들이 신청하는 희망도서 구입신청 역시 예전의 평균 한달에 1백여장의 신청서가 접수되는 것이 요즘은 60여장 정도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지난 90년대부터 도서관 이용에 대한 안내 책자를 따로 발행하지 않고 학교 생활 안내책자에 포함된 내용만으로 도서관 이용에 대해 알리는 현상 때문에 학생에 대한 홍보 미흡으로 인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때문에 도서관측은 '빠르면 5월중으로 재학생들에게 도서관 이용에 대한 책자를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며 97학년도 신입생에게는 재학생과는 다른 또다른 안내책자와 도서관 이용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서관은 교수,학생에게 필요한 도서를 되도록 많이 구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올해에 책정된 도서구입비는 추천도서구입비는 1억5천여만원이며 희망도서구입비는 6천여 만원에 이른다.물론 이는 타대학에비해 떨어지는 도서구입비 이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교수들과 학생들이 꼭 필요로 하는 책을 도서관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정작 필요로 하는 당사자인 교수,학생의 도서 신청이 많아야 할 것이다. (이태훈 기자)

◇'천리마 되어 나서라…' 서남총련 출범식이 지난 7일 중앙대에서 개최되었으며 안상목 단국대 총학생회장이 의장으로 옹립되었다. 사진은 문화공연 모습. (김기영 기자)

단위별 대동제 준비 한창

비디오 상영등 다양…일부 단대 기획 미비

문과대 문과대학생회(회장=원진욱·사학4)는 대동제 기간 동안 '전대협 한총련 10년' '노수석 열사 추모 비디오'를 상영한다.

이과대 이과대학생회(회장=박노철·수학4)는 대동제 기간 중 '이과대 단위 학자투 총화' '5·18'을 주제로 거리 선전전을 벌인다.

법과대 법과대 학생회는 15일 6시 동국관 옆에서 법대장기자랑을 실시한다.

으뜸상, 버금상 등 푸짐한 시상이 준비된 법대장기자랑은 법과대 학생을 참가대상으로 한다.

사과대 사회과학대 학생회는 대동제 기간동안 생활도서관을 운영하고 각 학과 소모임이 준비하는 행사를 가진다.

정외과 소모임 The L.A.S.T. '끼'는 영상제를 열고 사회학과 노래 소모임 '마구만'은 16일 공연을 가지며 사과대 주최로 컴퓨터 점도 선보인다.

동국관 옆에서 치뤄지는 생활도서관은 사회과학계열의 책을 전시하고 녹두서점의 지원을 받아 10% 인하된 가격으로 책을 판매한다.

생자대 생명자원과학대(회장=장광배·식자4)는 이번 대동제 기간동안 단과대 행사로 우리 농산물 고르기 및 판매, 생자대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교수간담회, 생자대의 역사 및 학생회 활동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전을 실시한다.

또 학생회 강화와 일꾼발굴및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각과 행사로 △식물자원학과=연합체육대회 및 영화제 △산림자원학과=나모회 전시회 △응용생물학과=사과촌학술제, 금강초롱전시회 △생명자원경제=체육대회를 치룬다.

공과대 공과대 학생회(회장=구준서·전자4)는 통일대행진에 공과대 역량을 총집중하고, 행사를 통한 공과대의 결속에 주안을 둔다.

주요행사인 광장사업에는 시화전, 통일거리, 학생회 사업홍보, 문화거리가 있고, 과별 행사로는 △화학공학과=화공 PROCESS전 △토목공학과=토목전 △건축공학과=건축전 △기계공학과=기계전 △전자공학과=인공지능 로봇 경주 대회 △산업공학과 =향토식품판매 △공대 진모 소모임 연합=거리 공연 및 빈민 지원 의류 판매 등이 있다.

사범대 사범대 학생회(회장=조달현·수교3)는 이번 대동제를 투쟁적인 실천의 장으로 이끔과 동시에 학생회 강화를 목적으로 행사를 치룬다.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15일=전통혼례식(불상앞 12시), 열전 달리는 예비교사 (3시) △16일=통일관련 비디오 상영 및 노래경연대회(5시)△15일부터 16일=참교육 물품판매가 있다.

전통혼례식은 우리의 것을 바로 알자는 취지로 열리며 '열전 달리는 예비교사'는 교육재정확보 및 대선자금공개의 내용으로 하며, 통일관련 비디오는 정민주·이혜정의 방북 활동을 담는다.

학생복지위원회 제12대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서동욱·무역4)는 대동제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3일동안 '우리문화느끼기'를 주제로 우리차 마시기, 우리놀이 한마당, 우리옷 전시 판매와 다큐영화제를 개최한다.

중앙도서관 앞 행사장에서 열릴 이번 행사는 녹차, 수정과, 식혜, 유자차등의 우리차를 일백원 이상 유료로 받고 판매, 판매금액은 범정학련 후원회비 등의 성금으로 사용하며 우리놀이 한마당은 오후2시부터 6시까지 제기차기, 윷놀이, 투호 등의 놀이를 펼치게 된다. 또한 개량한복도 전시판매한다.

한편 부랑자, 앵벌이를 다룬 '우리는 전사가 아니다'등의 다큐영화도 오후 7시30분부터 상영한다.

이번 행사에 대해 학생복지위원회 이관영(광고·2) 생활문화국장은 "우리것들을 알려내고, 의식을 바꿔나가는 마당이 될 것"이라고 그 의의를 강조했다.

동아리연합회 제12대 동아리연합회(회장=최동현·국교4)는 96년 대동제를 '동국 90년 희망만들기. 오늘, 우리 함께하는 창조와 건설의 땀방울' 이라는 모토아래 치뤄낼 예정이다.

사업기조는 △분과공동의식 확보와 분과매체에 맞는 사업내용으로 △3천 동아리인들의 공간문제 해결의지를 모아 △함께하는 호흡, 든든한 공동체, 민중연대의 발걸음등이다.

올해 동연의 대동제 사업의 특징은 중앙행사에 무리하게 치중했던 과거모습을 탈피해 분과중심으로 행사가 진행된다는 것과 '공간투쟁 기금마련을 위한 수익사업과 공연행사'를 중점으로 한다는 점이다.

이번 행사에 대해 최동현회장은 "예년에 중앙행사와 4, 5개의 행사로 그쳤던 대동제가, 올해는 20개로 확대되고 내용도 다양하게 준비되었다"며 "이번 분과중심의 대동제가 분과공동의식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총대의원회 예산분배 난항

5.5% 초과 중앙기구간 양보 있어야

96년 1학기 예산분배가 중앙기구(총학생회·동아리연합회·총여학생회)간 분배비율 문제를 남겨 둔채 난항을 겪고 있다.

중앙기구로 배정된 37%의 분배를 두고 △총학=23% △동연=8% △총대=5% △총여=6.5%를 요구해 5.5%나 초과한 상황에서 총대의원회는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10일 각 중앙기구 사무장회의를 주재했으나 각 기구간 일정에 쫓겨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한 채 결렬됐다.

이날 예산분배소위원회 의장 최이선(통계4·총대부의장)군은 "각 기구마다 마지노선임을 강조하지만 요구대로만 집행할 수 없다"며 '한발자국씩의 양보'를 당부했다.

한편 대동제 비용은 5백만원이 원천징수되고 나머지는 각 단과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난 주에 결정됐다.

19일 '연등 축제' 한마당

'부처님 오신날'봉축행사의 일원인 제등행렬행사에 본교 신행단체인 불교대학생회, 불교학생회, 교수불자회, 여직원불자회, 사무직원불자회 등 3백여명이 참가한다.

'연등축제'라는 이름아래 행해지는 제등행렬은 오는 19일 오후 5시 동대문운동장에서 대규모법회 개최 후 종로보신각까지 3㎞구간에 걸쳐 3만여명의 시민 연등행렬을 펼칠 예정이다.

단순히 연등을 들고 행진만 하던 과거와 달리 동대문운동장, 종로탑골공원, 보신각 등 주요지점에서 각각 국립관현악단연주회, 강강술래 공연, 놋다리밟기 등 전통두레놀이, 풍물패공연, 영상쇼 등을 동시다발로 열어 불교신자뿐 아니라 모든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 한마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총동, 정기이사회 당선자 축하연도

총동창회(회장= 황명수)는 제58차 정기이사회를 지난 9일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개최했다.

이번 정기이사회는 95회계년도 결산보고및 96회계년도 사업계획논의와 제15대 국회의원 당선자의 축하연이 함께 진행되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이사회비 인상과 동창회 연회비 인상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한편, 이사회의 2부순서로 진행된 국회의원당선자 축하연에서는 당선된 14명의 의원중 6명이 참가한 가운데 축하패 전달이 있었다.

불대, 불교도 주간

불교대학생회(회장= 방춘배·선4)는 13일부터 17일까지를 불교도주간으로 정하고 다채로운 행사를 벌인다.

동악의 모든 불교도가 중심이 되어, 전체가 화합하는 것을 기조로 한 이번 행사의 일정은 △13일= 불교유적답사학회의 거리전시, 제등행렬(오후4시), 법회(오후5시, 불상앞) △14일= 북한사찰전시, 과별관매전, △15일= 인절과주점(만해광장), 연등만들기(오전10시, 도서관앞), '김영삼정권의 편향적 종교정책'에 대한 강연 △16일= 열사천도제(오전11시), 장기대회(오후3시) △17일= 민속행사, 공연, 평가 및 시상식, 폐회선언을 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국가대표 3명 발탁

야구부 백재호(경영4)등 3명이 애틀랜타올림픽대비 국가대표에 발탁돼 5, 6월을 해외전지훈련으로 바쁘게 보낼예정이다.

유격수와 포수로 활약하여 춘계리그 전우승에 크게 공여한 야구부 백재호(경영4)와 신경현(체교3)선수는 내일부터 내달 4일까지 열리는 국가대표미국전지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출국했다. 국가대표에 선발된 이들은 전지훈련후 발표하는 최종엔트리(22명)선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축구부 이상헌(일문3)선수 역시 윌드컵유치홍보를 겸한 유럽, 아프리카 전지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 7일 출국했다.

이주의 개교기념 행사

▲대동제= 14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기념수계식= 14일 오후4시 정각원 법당

▲부처님 오신날기념 학술세미나= 17일 학술문화관 중극장

▲동국인 저작도서 전시 및 특별판매= 오늘(13일)부터 17일까지 도서관 앞.

▲윤이상 음악회(비천, 겨레의 하늘을 날아)= 15일 오후 7시 여의도 KBS홀 17일 오후 5시 불상 앞.

회·전·무·대

조화

○…지난 7일 '열린 음악회' 녹화가 있었는데.

이 방송의 출연 가수진을 살펴보면 심수봉, 송창식, 태진아 등으로 대부분의 출연진이 중견급.

이 행사를 관람하는 다수가 20대의 학생층인 것을 감안할 때 이는 KBS측이 학생들의 선호도를 고려하지 않고 행한 성의없는 처사가 아닐런지.

이에 본 회전 무대자 왈 "아무리 90주년 기념 행사라지만 출연 가수진도 90주년에 맞출 건 또 뭐예요!"

수재란(?)

○…그동안 컴퓨터 해킹방지 기법을 연구 해오던 동아리에서 공기관 전산시스템에 침투, 해킹을 일삼아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는데.

이들은 다름아닌 KAIST의 수재들.

거기에 몇년전부터 국내유명 대학에서는 반장난겸, 해킹을 경쟁적으로 해왔다는 사실은 수재들의 도덕성을 의심케 하는게 아닌지.

이에 본 회전무대자가 말하길, "수재(秀才)는 수재(手災)?"

남자의 계절

○…눈부시게 따뜻한 햇살과 싱그럽게 뿜어내는 분수가 봄을 한층 더 느끼게 하는 요즘.

여학우들의 치마가 점점 짧아지고 있어 남학우들의 눈을 어지럽게 한다는데.

특히 후문에서 학림관까지의 계단이나 본관옆 계단, 동국관에서 학술문화관까지의 계단에서는 현란하기까지 하다고.

이에 한 음흉한 남학우 왈 "끝이 보이네."

새로운 성폭력

○…이미 사회적으로 부각된 성폭력, 여성들만의 피해는 아니라는데.

남자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거나 대변을 볼때, 노크없이 들어와 '학생 나가요' '어서 일보고 나와요' 라고 외치는(?) 청소부 아줌마들때문에 용무에 지장이 많다고.

화장실을 깨끗히 청소하려는 아줌마들의 정성(?)도 이해하지만 그속에서 용무를 보는 학우들은 안절부절…

이에 화장실을 찾은 한 학우 한마디 "화장실은 아줌마들만 청소한다는데 이는 성폭력(?) 성차별(?)"

개교 90주년 맞이 목멱대동제

기간: 1996년 5월 14일(불날)-17일(쇠날)

주제: 교육재정 확보와 진정한 동국발전을 학우들의 가슴 품안에 가득 담아내고 학우들의 손으로 건설하는 개교 90주년 동국발전의 대안을 찾아가자!

5월 14일 통일선언일

민족자주와 90년대 연방통일조국 건설을 위한 일만동악 통일대행진

5월 15일 동국의 날, 스승의 날

5월 16일 천도제 및 열린마당(춤극, 영화시사회-Land & Freedom)

5월 17일 민족자주의 날

열린강좌(강사: 문부식 시인)

지역주민한마당

폐막식

역사창조·인간존엄

제28대 자주적 총학생회

이 동 병 무 상 담

1996학년도 신입생 및 재학생을 위한 이동 병무상담실을 서울병무청 협조로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상담을 바랍니다.

아 래

1. 상담일시: 1996년 5월 28일 09:00~17:00(1일간)
2. 상 담 원: 서울 병무청 직원
3. 장 소: 취업 자료실(본관 취업과 옆)

학 생 처 장

공직설명회 안내

'96학년도 정부 공직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학생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다 음

1. 일 시: 1996. 5. 21(화)오후 2시~4시
2. 장 소: 동국관 L101강의실
3. 설명회 내용(순서)
   가. 공직 취업안내
   나. 질의 답변
   다. 동문공무원의 경험담(후배격려)
4. 초청강사:
   김증양(총무처 인사국장)
   우상일(문체부 청소년시설수련과장)
   이계문(재경원 청소년시설수련과장)
   정재남(외무부 동북아 2과장)

학 생 처 취업과

대학원 연구논집 원고모집

1996년 동국대학교 대학원 연구논집 제26집 발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를 모집하오니 많은 투고 바랍니다.

1. 논문집 명칭: 대학원 연구논집 제26집
2. 투 고 대 상: 본 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생 및 수료생
   본대학원 출신 시간강사, 본 대학원 조교
3. 원 고 매 수: 인문·사회계-200자 150매 이내(한글로 작성시 A4용지 25매 분
   자연계-200자 100매 이내(한글로 작성시 A4용지 20매 분량)
4. 제 출 부 수: 교정용 및 심사용 4부, 디스켓 1장(한글로 작성요)
5. 재 출 처: 대학원 교학부(전화: 3093, 3094)
6. 원고 마감일: 1996년 8월 30일
7. 게 제 통 보: 1996년 10월중 개별통보
8. 발행 예정일: 1997년 1월 30일
9. 원고는 별첨된 투고요령에 준하여 작성해 주시고, 한글을 이용하여 A4용지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응모하여 통과된 원고를 교정할 때 기일을 지키지 못하면 논문집에서 제외되므로 제작 계획에 따른 교정일자를 꼭 지켜 주시어 논문집 발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 5. 3

대 학 원 장

96년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공고

1. 교육대상: 본교 예비군 전원
2. 교육대상 제외자
   ◇'96년도 전역자
   ◇'90.12.31일 이전에 전역한 사병
   ◇'88.12.31일 이전에 전역한 장기하사 이상간부
3. 교육시간: 8시간
4. 교육일정(대학별)

5.20(월)	5.21(화)	5.22(수)	5.23(목)
공과대 교직원	불교대 예술대 경상대 사범대 법과대	이과대 이부대 생명자원과학대학	문과대 사과대 대학원

5. 교육장소: 노고산 종로·중구훈련장(제1905부대)
   ◇구파발전철역에서 송추방향으로 300M지점에 학교버스, 관광버스 대기(06:20-07:00까지 운행)
   ◇시내버스: 구파발 전철역에서 156번(북한산성→송추)
   ※156번중에 북한산성경유 송추행이 아닌 삼천리골행, 일영경유 송추행탑승금지
6. 복장: 예비군복(준투복, 전투모, 전투화, 고무링, 허리띠)
7. 휴대품: 신분증, 주민등록증지참(분실자: 학생증, 면허증, 예비군연대에서 편성카드 복사)
8. 특별(유의)강조사항
   ①08:00이후 훈련장 도착자 입소불가(위병소 엄격통제)
   ②전투복, 전투모, 전투화, 고무링, 허리띠중 1가지라도 미 착용자 절대 입소불가
   ③학교에 잘 나오지 않아 공고문을 보지 못했다거나, 교육소집통지서를 받지 못해 교육일정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는 해결방안이 되지 않으므로 예비군 신분의 재학생은 예비군 연대본부에 수시로 문의바랍니다.
   ④해당 일자에 교육을 참석 못할경우는 사전에 예비군 본부로 신고바랍니다.

＊예비군 연대본부 연락처: ☎ 260-3072~3

1996.5

동국대학교예비군연대장

영상매체비평 — 광고편

광고실명제

광고주와 대행사간 동반자 관계 필요

소비자 신뢰성·광고인 부정론 동시 부각

광고 실명제가 하나의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다. 지난 3월 18일자 경제지에 게재된 유공의 기업PR 광고에는 "기획 제작:유공 홍보실, 광고주 담당:황인성 과장, 제일기획 제작 7팀 CD 이용찬, AE 문제인,…"등으로 제작자들의 이름이 명기되어 있다. "월드컵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헤드라인의 이 공익성 광고는 광고의 내용 보다는 실명제 광고라는 점에서 세인의 주목을 끌었다.

광고 실명제를 실시한 배경을 유공 홍보실에서는 4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광고 전문가들을 예우함으로써 수준높은 광고 제작물을 기대할 수 있고, 둘째,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실명 광고를 그렇지 않은 광고보다 더 신뢰하기 쉽고, 셋째, 제작 담당자들의 책임 의식과 의욕을 고취할 수 있으며, 넷째, 2~3년만 지나도 광고 배경을 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작 시점과 제작자를 명기함으로써 광고의 사료적 가치를 높인다는 것이다.

미국이나 프랑스에서는 이미 광고 실명제가 보편화되어 있다. 그래서 광고주들이 새로운 광고 대행사를 선정할 때는 그 회사에 어떤 사람들이 포진해 있는가를 먼저 따지기도 한다.

그러한 제도는 일찌기 광고의 국제 경쟁력을 높였으며 광고의 선진화를 앞당기기도 했다.

그런데 우리 광고계에서는 광고 실명제 실시에 대한 겉마음과 속마음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책임의식을 수반하면서 프로 광고인을 양성하는 제도라는 긍정론과, 광고인의 생명을 단축시킬지도 모르는 독사과가 될 수 있다는 부정론이 그것이다. 현재 그것은 '뜨거운 감자'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제도가 광고인들의 호평을 받을 것이라는 언론에서의 논조와는 달리 광고 현장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많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광고실명제가 모방 광고나 허위 광고를 근절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광고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는 대원칙에는 거의 모든 광고인들이 동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의 실시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까닭은 과연 무엇일까? 가장 큰 까닭은 광고주와 광고 대행사간에 진정한 의미의 파트너쉽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우리 광고계의 척박한 현실 때문이다. 광고주가 모델의 옷차림 하나까지 간섭하고 공들여 쓴 카피를 입맛대로 뜯어고친 광고물에다 그 누가 쉽사리 자신의 이름을 올리려고 할 것인가?

소비자들은 실명제 광고를 더 신뢰할 수도 있다. 당연한 이치다. 이번의 광고 실명제를 계기로 제작물의 독자성과 독창성을 확보함은 물론 광고주와 광고 대행사간에 진정한 동반자적 관계가 구축되어 이런저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아쉬운 마음에서 광고 실명제를 부정하는 시각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유공에서는 앞으로 실명제 광고를 계속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의 광고 실명제는 광고주가 광고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포기하는 기회비용을 광고인들에게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광고 실명제에 대한 광고인들의 부정론이 하나의 기우(杞憂)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김 병 희

〈광고 평론가·선연카피라이터〉

메아리

세마리 용

▲요즘 컴퓨터 게임은 'R.P.G'라는 — 풀어서 말해 'ROLL PLAYING GAME(롤플레잉게임)'이 주류를 이룬다. 주인공은 이야기 설정에 따라 맡은 역할이 주어진다. 대개 게임은 불을 뿜는 용이 나오고 슬라임, 가고일등 괴물이 등장하며 님프(요정)가 빛을 인도하는 가공의 환타지 세계에서 주인공은 먼저 여러 괴물들과 싸우며 경험치를 축적하는 힘든 수행이 모험에 전반을 이룬다. 드디어 선택받은 전사가 됐을 때 어둠의 용을 무찌를 전설의 검을 얻어 세계를 구하고 영웅이 된다. 세계는 선과 악이 확연히 구분되고 전사는 오로지 세계의 빛을 위해 괴물들과 싸울 때 전설의 검은 그를 주인으로 선택하고 악을 향해 칼날을 세우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정(政)과 치(治)는 어둠이 지배하고 있다. 3마리 용들이 좁은 땅에 주리를 틀고 앉아 여러 괴물들을 보내 수도의 성을 공격하는 한차례 전쟁이 지나가고 땅은 폐허가 되었다. 난세를 구해줄 전사를 기다리며 온 민중들은 선거라는 검을 갈았건만 검은 전사를 가장한 3마리 용 누구도 선택하지 않았다. 용들은 다시 내년을 위해 전사를 가장하고 나서려 한다. 민중들의 검은 점점 더 무디어 가고 이젠 신물이나 칼날 가는 것마저 그만두려 한다. 전사는 나타나지 않는가. ▲시대는 화면 가득히 불덩이가 되어 뛰쳐나가는 전태일과 며칠전 옆자리의 학우가 불덩이가 되어 뛰쳐나가는 것은 다르다고 말한다. 그리고 공동의 대상엔 무관심하고 혼자만의 대상엔 감각적인 세대. 드디어 세계를 독점한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전형이라 말한다. 세상의 악은 교묘히 숨어 있다. '포스트'적이고 그리고 '모던'한 세상. 우리를 그렇게 단정짓는 교묘한 세상의 올가미에 걸려든 것이다. ▲민중들이 세우는 전설의 검은 새로운 전사를 기다린다. 그리고 전사는 바로 여기에 존재한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라는 우리의 자각 속에….

〈설〉

◇ 제4회 젊은 연극제

젊은이다운 창조력과 실험정신 부족 아쉬워

연극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모였다.

본교, 단국대, 상명여대, 중앙대, 청주대, 한양대 6개대의 연극영화학과 학생들이 모두 모여 제4회 젊은 연극제를 개최, 창조적인 대학문화를 만들기위해 준비가 한창이다.

젊은 연극제는 1993년 단국대 연영과 윤호진 교수의 추진아래 단국대 주관으로 처음 실행되었고 올해 4번째로 맞는다.

한국대학 연극학과 교수협의회와 6개대학 연영과 학생들 대표자들과의 협의아래 '희랍극'을 테마로 그리스 신화에 관한 얘기로 주를 이뤄나가는 이번 연극제는 '희랍극의 재발견을 위한 동시대 젊은이들의 연극향연'을 주제로 열리는 등 연극의 기원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리고 오는 12일부터 두레극장과 국립극장소극장에서 공연되는 출품작과 일정을 살펴보면 △청주대= 두레극장, 안티고네 12, 13일 4시, 7시 △한양대= 두레극장, 안티고네 15,16일 4시, 7시 △단국대= 국립중앙소극장, 상복이 어울리는 엘렉트라 17일 7시 18일 4시, 7시 △동국대= 국립중앙소극장 클리테메스트라 19일 7시 20일 4시, 7시 △상명대= 국립중앙소극장, 오레스테스 3부작 21일 7시 22일 4시, 7시 △중앙대= 국립중앙소극장. 오이디푸스 23일 7시 24일 4시, 7시이다.

본교 연영과에서 연극제에 출품하는 '클리테메스트라'는 여자를 주인공으로 한 흔치 않은 희랍극으로 기존의 신에 의해 운명이 결정되는 주인공과는 다른 캐릭터로 신에 대해 저항하며 파멸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연극이다.

이 '클리테메스트라'는 그리스왕 '아가멤논'의 왕비 '클리테메스트라'를 주인공으로 가족들간의 복수와 갈등을 주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연출을 맡은 박근표(연영·4)씨는 "원본에 따르지 않고 그 당시를 현시점에서 다시 재현한 것으로 신의 논리(남성논리) 질서를 파괴해 보는 것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기존의 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한 연극과는 다르다고 이야기한다.

본교뿐만아니라 타대학 연영과에서도 희랍극을 주제로 새롭게 각색, 연출을 맡아 나름대로 독특한 연극을 공연하게 된다.

연극영상학부 김흥우교수도 "정기적으로 공연하는 대학연극제와는 달리 아카데믹하게 젊은 연극제가 공연을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연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귐의 자리를 갖게되고, 또 학문적 교류에도 큰 도움이 될것"이라며 젊은 연극제의 활성화를 기대했다.

이렇듯 젊은 연극제는 대학인들의 창조적인 정신을 맘껏 펼칠수 있는 교류의 장으로 대학연극의 무대를 넓힐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왔다.

제4회 젊은연극제에서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연영과 학생들이 원본을 스스로 제작하지 못해 순수 창작극을 공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연작을 보면 소포클레스, 유진 오닐, 아이스킬러스등의 원작을 토대로 그리스신화를 공연하는데, 이와 다르게 그들이 만든 원본으로 새로운 주제를 정해 순수연극을 만든다면 그들의 창조성은 더욱 펼쳐질 것일수 있지 않을까.

일반 대학생들의 의식보다 한발 앞서 젊은이로서의 창조력과 실험정신을 담은 연극을 대중에게 보이는 것이 '젊은 연극제'을 더욱 빛나게 하지 않을까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한상용 기자)

◇ 제1회 원효문예대제전

원효대사 사상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한 문예전

'모든 것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라야 생사의 편안함을 얻는다'는 무애가로 대중 속의 불교를 위해 노래와 춤으로 대승보살도를 실천한 원효대사는 이름처럼 우리나라 대승불교의 신새벽을 연 성인이다.

그런 원효대사의 사상적으로 초월한 일심, 화쟁, 무애사상의 보편적 가치를 재조명하여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고자 분황사 내의 원효학연구원에서는 첫번째 기획행사로 마련한 '원효문예대제전'을 곧 선보일 예정이다.

원효대사의 회일 1천3백10년이되는 오는 16일(3월, 그믐)부터 17일까지 분황사 황룡사지, 경주시내 일원에서 치뤄지게 된다. 이 행사의 부제인 '신새벽 술을 토하고 없는 길을 떠나다'는 생소하면서도 모든 걸 해탈해버린 듯한 느낌을 준다. 그뜻은 '원효대사가 세속적인 것을 초월하여 무애가무사상으로 대중 속에서 불교를 위해 노래와 춤으로 대승보살도를 실천하는 모습이라고 한다. 그뜻에 맞게 현대적 방법으로 재창조한 시·노래·춤·굿·마당극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게 된다.

이번 원효문예대제전에 대해 분황사 주지 종수스님은 "민족문예적 가치를 확인하여 민족문화예술제전으로 승화시켜 신라 천년고도의 도시인 경주를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행사"라고 그 의의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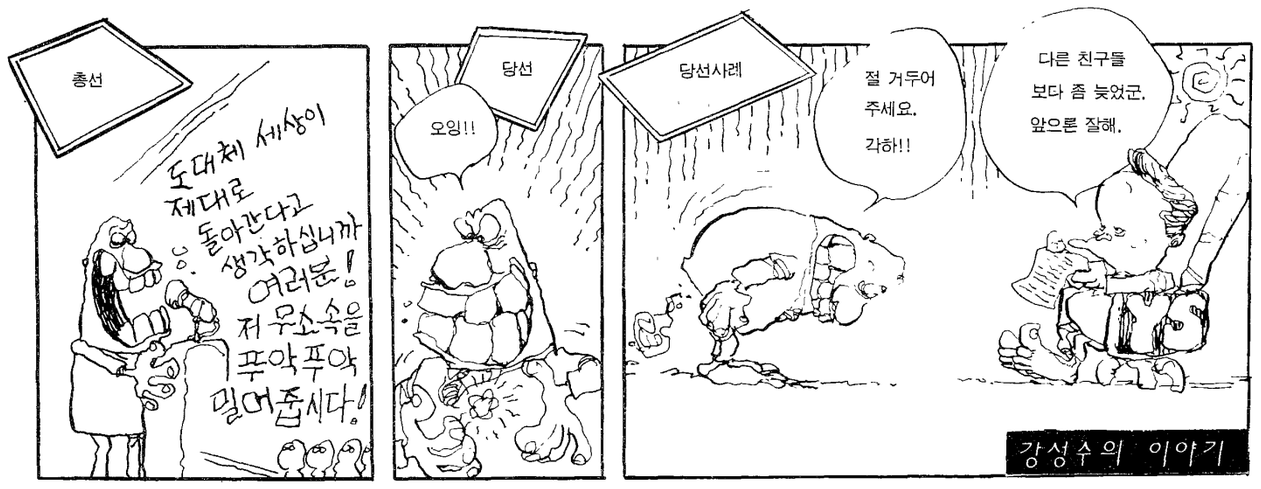
행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16일(첫째날)원효대사의 회일로 강연을 한다. 이어 오후에는 경로잔치마당으로 경주시민과 불자등의 어울림한마당이 열릴 계획이며, △17일(둘째날) 경주시내 일원에서 깃대를 든 어린이 호기행렬과 원효스님, 요석공주등으로 가장한 가장행렬패의 거리행진을 시작으로 걸판진 거리굿이 벌어진다.

◇ 분황사 내의 모전석탑

이어 황룡사지 가설무대에서는 1천3백10여개의 나래연으로 밤 하늘을 수 놓으며 열림마당 행사가 진행되는데 김지하, 이문재씨의 열림시, 여러 초정예인의 노래와 춤 한마당, 극단 자갈치의 '신새벽 술을 토하면 없는 길을 떠나다'라는 마당극, 그리고 분황사 경내의 모전석탑을 가운데로 하여 탑돌이를 돌며 제1회원효문예대제전의 그 막을 내리게 된다.

명목상 문화도시였던 경주에서는 이번 '원효문예대제전'행사는 새로운 지역문화 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앞으로 지속되어 세계속의 경주로 각인되길 기대해 본다

〈이성웅 기자〉



동국대학교 1996학년도 후기 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 광고

불 교 대 학 원

1. 모집과정 및 전공:석사과정, 연구과정, 지도자과정
 1)불교학과:불교학 선학
 2)불교사학과:불교사, 예술사
 3)불교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포교학
2. 지원자격
 1)석사학위과정: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졸업학력자
 2)연구과정:석사학위과정과 동일
 3)지도자 과정:조계종의 대덕 법계품수 승려, 각 종단의 간부, 각 신행단체의, 간부 및 대표, 포교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자
4. 원서교부 및 접수: '96. 5. 29(수)—6. 12(수) 평일 09:00—17:00 (토, 일, 공휴일 제외)
4. 전형일시 및 장소:본 대학원 교학부
 1)석사과정:'96. 6. 17(월) 14:00
 2)연구과정:'96 6. 17(월) 14:00
 3)지도자 과정:'96. 6. 18(화) 14:00
5. 전형방법
 1)석사학위과정
  가)일반전형:필기시험(영어, 전공) 및 면접
  나)특별전형:서류전형 및 면접고사—사회지도급 인사를 우선함.
 2)연구과정:서류전형 및 면접
 3)지도자 과정:서류전형 및 면접
6. 특전: 조계종 재적승려, 공무원, 교직원, 군인, 불교언론인은 소정의 장학금 지급

석사·연구 과정

1. 모집학과 및 전공
 1)불교학과:불교학, 선학
 2)불교사학과:불교사, 예술사
 3)불교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포교학
2. 모집과정 및 인원
 1)석사학위과정:00명
 2)연구과정:0명
3. 응시자격
 1)국·내외에서 4년제 정규대학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취득 예정자
 2)외국에서 16년 이상의 정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3)기타 법령에 의거하여 자격이 있다고 판정된 자
4. 전형방법
 1)석사학위과정
  (일반전형):필기시험(영어, 전공) 및 면접
  (특별전형):서류전형 및 면접고사—사회지도급 인사를 우선함
 2)연구과정:서류전형 및 면접고사
5. 원서교부 및 접수 기간
 1996년 5월 29일(수)부터—6월12일(수)까지 평일 09:00—17:00까지(토, 일, 공휴일 제외)
6. 전형일자:1996년 6월 17(월) 14:00
7. 전형장소:불교대학원 교학부에 게시함
8. 합격자 발표:개별 통지
9. 제출 서류
 1)입학원서 1통(본 대학원 소정양식)
 2)사진 5매(3개월 이내 반명함판)
 3)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통
 4)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통
 5)주민등록 초본 1통(병적사항 기재요)
 6)본교 각학원장 추천서 및 이력서 1통
10. 특전
 1)해외 자매대학 유학 및 연수에 참가할 기회부여함
 2)조계종 재적승려 및 공무원, 교직원, 군인, 불교언론인은 소정의 장학금 지급함
11. 기타사항
 1)우편으로 원서를 청구할 때는 주소, 성명을 명기하고 반신료 1050원 우표 및 전형료를 동봉하여 본 대학원 교학부로 보낼 것
 2)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함.

지도자과정 (제12기)

1. 모집인원:000명
2. 자격 및 전형 방법
 가. 자격
  1)조계종의 대덕 법계 품수 승려
  2)각 종단의 간부
  3)각 신행 단체의 간부 및 대표
  4)신심이 돈독한 자
 나. 전형방법:서류전형 및 면접
3.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996년 5월 29일(수)부터 6월12일(수)까지 평일 09:00—17:00까지(토, 일, 공휴일 제외)
4. 전형일자:1996년 6월 18일(화) 14:00
5. 전형장소:불교대학원 교학부에 게시함
6. 제출서류
 1)입학원서 1통(본 대학원 소정양식)
 2)반명함판 사진 5매
 3)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4)주민등록 등본 1통
 5)본교 정각원장 추천서 및 이력서 각 1통
 6)승적 및 재직증명서 1통
7. 특전
 1)구미를 비롯한 각국 자매교와 학술교류 및 상호 방문
 2)조계종 재적 승려 및 공무원·교직원·군인·불교언론인은 소정의 장학금 지급
8. 합격자 발표:개별통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교학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100—715) 서울 중구 필동3가 26번지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교학부 전화 260—3097, 260—3098.

행 정 대 학 원

석사학위과정 무시험 특별전형

21세기 국가발전의 주역이 될 지도적 인재 양성을 위하여 행정학 석사학위과정 신입생을 무시험 특별전형으로 모집합니다.

1. 모집전공:일반행정/공공정책/관광행정/언론홍보/환경행정/외교국방/방위산업/군사전략/안보정책/경찰행정/소방행정/교도행정/사법행정/사경비/사회복지/북한체제/북한행정/북한사회/통일정책/지방행정/지방의회/지방재정/지역개발/
2. 인 원:○○명(모집정원의 50%내외)
3. 응시자격:학사학위 취득자로서 다음항 해당자
 가)정부 각기관의 5급이상 공무원
 나)각군의 영관급 이상 장교
 다)정부 투자기관의 임직원
 라)사기업체 및 사회단체의 임직원
 마)사회지도급 인사
4. 전형방법:서류심사 및 면접
5. 원서교부 및 접수:'96. 5 27(월)—6.4(화) 10:00—17:00
6.전형일시:'96. 6. 8(토) 14:00

행정관리자 및 연구 과정

1. 입학자격
 가. 정부 각기관의 5급이상 공무원
 나. 각군의 영관급 이상 장교
 다. 정부 투자기관의 임직원
 라. 사기업체 및 사회단체의 임직원
 마. 사회지도급 인사
 바.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전형방법:서류심사 및 며접
3.원서교부 및 접수:'96. 5. 27(월)—6. 4(화) 10:00—17:00
4.전형일시:'96. 6. 8(토)10:00
 ※문의처:행정대학원 교학부 ☎ 260—3101~3103

경 영 대 학 원

1. 모집과정 및 전공:석사과정, 연구과정
 가. 경영학과:조직 및 인사관리, 생산관리 및 계량경영, 마아케팅, 재무관리, 국제경영 전공
 나. 경제학과:산업경제, 금융 및 재정 전공
 다. 무역학과:무역이론, 무역실무, 무역보험 및 해운, 무역경영 전공
 라. 회계학과:관리회계, 재무회계, 세무회계 전공
 마. 경영정보학과:정보시스템, 경영정보시스템 전공
 바. 노사관리학과:노사관리전공
 사. 부동산학과:부동산전공
2. 모집인원
 가. 석사과정:00명
 나 연구과정:약간명
3. 전형방법:서류전형 및 면접
4. 지원자격
 가. 석사 및 연구과정
  1)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96년 8월 졸업 예정자
  2)외국에서 16년 이상의 정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3)기타 교육부장관이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나. 특별우대 전형자
  1)학사학위 취득자로서 5년 이상 직장근무경력이 있으며 현재 재직중인 자
  2)기업체·사회단체의 중견 간부, 고위 공직자 등
  3)사법·행정·외무고시 및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 등 국가고시 합격자
5. 제출서류
 가. 입학원서 1통(본대학원 소정양식)
 나. 명함판 사진 5매(최근 3개월 이내 촬영, 3.5cm×4.5cm)
 다. 대학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독학사는 학위 수여증명서) 1통
 라.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통
 마. 주민등록초본 1통
 바. 재직증명서(경력기재) 1통
 사. 자격증 또는 합격증 사본 1통
6. 원서교부 및 접수:'96. 5. 29(수)—6. 7(금) (10일간)
7. 전형일시 및 장소:'96. 6. 15(토) 14:00—본대학원 원장실
8. 특전
 공무원, 공인회계사, 교직원, 군인 및 조계종 재적승려 등에 대하여 본대학원 장학금 지급내규에 의거 장학금을 지급함.

최고경영자 과정

1. 지원자격:기업체 또는 사회단체의 대표 및 간부, 군고급장교 및 5급이상 공무원, 노조간부, 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2. 모집인원:00명
3. 원서교부 및 접수:'96. 5. 29(수)—6.7(금) (10일간)
4. 전형일시 및 방법:'96. 6. 15(토) 10:00— 서류전형 및 면접
5. 제출서류
 가. 입학원서 1통(소정양식)
 나. 명함판 사진 5매(최근 3개월 이내 촬영, 3.5cm×4.5cm)
 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라. 주민등록등본 1통
 마. 재직증명서(경력기재)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6. 합격자 발표:'96. 6. 21(금) 예정
※문의처:경영대학원교학부(☎260—3106, 3107)

교 육 대 학 원

1. 모집과정:석사과정 및 연구과정
2. 모집학과 및 전공
 1)교육학과:교육행정, 교육경영, 상담교육, 유아교육 전공
 2)교과교육학과:국어, 지리, 역사, 수학, 윤리, 철학, 미술, 한문, 체육, 영어, 물리, 화학, 생물, 가정, 전자계산, 종교, 중국어교육 전공
3. 모집인원:석사과정 ○○명, 연구과정 약간명
4. 응시자격
 1)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학사학위 취득 또는 취득예정자
 2)교육법에 의하여 대학원 진학 학력을 인정받은 자.
 3)외국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외국에서 16년 이상의 정규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4)교원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자는 별도의 교직 및 전공학점을 이수한 자.
※석사과정, 연구과정 동일함.
5. 원서교부 및 접수
 1)원서교부 및 접수:'96.5.20(월)—5.31(금) 10:30—17:00
 단, 토·일요일은 휴무
6. 제출서류
 1)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2)학위등록번호가 기재된 졸업증명서(졸업예정자, 졸업예정증명서) 1부
 3)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4)사진(명함판 컬러 사진, 3개월 이내 촬영) 4매
 5)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기재) 1부
 6)재직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7. 전형일시 및 장소
 1)일시:'96.6.8(토) 14:00
 2)장소:본교 학술문화관(추후 발표 예정)
8. 전형방법
 1)서류전형
 2)면접 및 전공구술 시험
9. 합격자 발표 예정일:'96. 6. 17(월)
10. 특전 및 우대전형
 1)본원의 장학금 지급 내규에 의하여 공사립교육기관의 교사 또는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 조계종 재적승려 등은 장학금을 지급함. 단, 입학후 장학금 지급계획이 변경될 시 재조정함.
 2)공사립교육기관의 재직교사, 정부 행정기관 재직자는 경력을 감안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평점시 가산점 부여함.
11.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지원하는 자는 반드시 자격취득 가능 여부를 파악하여 지원해야 함.(자격증 발급기준 자료 참조(교학부 비치))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교학부에 문의 바람(☎260—3109~3110)

문 화 예 술 대 학 원

석사과정 및 연구과정

1. 모집학과·전공 및 모집인원

과정	학과	전공	모집인원
석사	문예창작학과 연극영화학과 불교예술문화학과 환경예술학과	문예창작 공연예술·영상예술 불교미술·불교음악·문화재 환경예술	○○명
연구		상 동	약간명

2. 응시자격
 가. 석사학위과정
  1)국내·외에서 4년제대학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취득예정자.
  2)외국에서 16년 이상의 정규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3)기타 법령에 의거하여 자격이 있다고 판정된 자.
 나. 연구과정
  석사학위과정과 동일
  ※출신학과에 관계없이 지원가능
3. 전형방법
 가. 석사과정:필기시험(논술)및 면접시험
 나. 연구과정:서류전형 및 면접
4. 제출서류
 가. 석사과정
  1)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2)대학졸업증명서(학위등록번호 기재된 것)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3)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4)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1부.
  5)주민등록초본 1부.
  6)여권용사진 5매(최근 3개월 이내 촬영)
 나. 연구과정:석사학위 과정과 동일
5. 원서교부 및 접수일시
  일 시:1996. 5. 27(월)~6. 7(금)10:00~17:00
  장 소:본 대학원 교학부(학술문화관K동3층)
6. 전형일시 및 장소
 가. 일 시:1996. 6. 15(토)10:00
 나. 장 소:본 대학원(학술문화관K동3층)
7. 합격자 발표:1996. 6. 21(금)개별통지 예정
8. 특 전
 가. 각종 장학금 지급 제도 있음.
 나. 해외자매대학 등의 연수에 참가할 기회 있음.

문화예술지도자 과정

1. 모집분야 및 모집정원

과정	모집분야	모집인원
문화예술지도자	문예창작·공연예술 영상예술·불교미술 불교음악·문화재 환경예술	○○명

2. 응시자격
 가. 정부 각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나. 본사 주지급 스님
 다. 언론·문화·예술 및 유관기관의 임원
 라. 기업체 임원
 마. 사회지도급 인사
 바.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전형방법: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4. 제출서류
 가.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다. 재직증명서 1부.
 라. 주민등록등본 1부.
 마. 이력서 1부.
 바. 여권용사진 5매(3개월이내 촬영)
5. 원서교부 및 접수
 가. 일 시:1996. 5. 27(월)~6. 7(금)10:00~17:00
  ※단, 토·일요일은 원서만 교부함.
 나. 장 소:본 대학원 교학부(학술문화관K동3층)
6. 전형일시 및 장소
 가. 일 시:1996. 6. 15(토)10:00
 나. 장 소:본 대학원교학부(학술문화관K동3층)
7. 합격자 발표:1996. 6. 21(금)
8. 특 전
 가. 각종 장학금 지급 제도있음.
 나. 해외 자매대학 등의 연수에 참가할 기회 있음.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에 다를 경우 입하거가를 취소함.
 나. 문의처
  전화:260—3606~7, 주소: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번지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교학부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본 대학원 교학부로 문의바람.